

수원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 부지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京畿文化財團
畿甸文化財研究院
水原市華城事業所

수원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 부지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8

京畿文化財團
畿甸文化財研究院
水原市華城事業所



원색사진 1. 유적 전경



원색사진 2. 유구 노출 전경(①), 북측 호안석축(②), 남측 호안석축(③)전경



원색사진 3. 남측 호안석축 세부(①), 신풍교 교대지 전경(②)



원색사진 4. 출토유물

차 례

I. 머리말	9
II. 遺蹟의 位置 및 現況	12
1. 遺蹟의 位置	12
2. 周邊遺蹟現況 및 歷史的 背景	14
III. 調査內容	18
가. 遺構	19
1. 明堂水 護岸石築	19
2. 新豐橋 橋臺址 및 殘存遺構	21
3. 舊道路의 地表 및 盛土狀態	22
나. 出土遺物	22
IV. 考察	38
V. 맺음말	40
부록	
수원 「화성」성역화 사업중 행궁앞길 축조의 토양단면 조사결과	61

도면 차례

도면 1. 유적 위치도(1:25,000)	11
도면 2. 유적주변 지적도	12
도면 3. 근세 한국 일반분지일지형도(조선총독부, 1917년)	13
도면 4. 수원부지도(1872년)	16
도면 5. 화성전도(『화성성역의궤』에서 발췌)	17
도면 6. 화성행궁앞 광장조성부지내 시·밭갈조사 유구배치도(1:900)	18
도면 7. 북측 호안석축(1:60)	20
도면 8. 남측 호안석축(1:60)	23
도면 9. 교대지(1:60)	25
도면10. 출토 유물	28
도면11. 출토 유물	30
도면12. 출토 유물	32
도면13. 출토 유물	33
도면14. 출토 유물	34
도면15. 출토 유물	35
도면16. 출토 유물	36

사진 차례

사진 1. 화성 행궁 전경, 조사전 전경	43
사진 2. 유적 전경, 유구 노출전경	44
사진 3. 북측 호안석축 항공사진, 전경	45
사진 4. 북측 호안석축 전경, 세부, Trench 동쪽, Trench 서쪽 토층	46
사진 5. 남측 호안석축 항공사진, 전경	47
사진 6. 남측 호안석축 세부	48
사진 7. 신평교 교대지 조사전 전경, 노출 전경	49
사진 8. 신평교 교대지 항공사진, 전경, 세부, 동쪽 토층	50
사진 9. 신평교 잔존 유구 전경, 토층	51
사진10. 신평교 잔존 유구 세부, 신평교 교대지 전경	52
사진11. Tench 19 전경, 토층 세부, 농촌진흥청 토양샘플 채취광경	53
사진12. 출토 유물	54
사진13. 출토 유물	55
사진14. 출토 유물	56
사진15. 출토 유물	57
사진16. 출토 유물	58
사진17. 출토 유물	59

I . 머리말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완전한 복원을 목표로 성곽은 물론 화성행궁을 비롯한 부속건물, 자연경관 등의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사업 가운데 1단계 복원을 마친 화성행궁 앞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규모 광장의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화성사업소는 광장조성에 앞서 화성행궁 앞을 흐르던 명당수와 신평교의 정확한 위치 및 관련시설의 유무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원에 정밀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본 연구원은 화성사업소와 2006년 3월 16일 조사계약을 체결하여 3월 28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258-1번지 일대 약 22,100㎡의 면적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조사결과 명당수 호안석축과 신평교 교대지 및 잔존 유구를 확인하여 2006년 5월 11일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추가확인을 위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2006년 7월 10일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조사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06년 2월 3일 : 시굴조사 의뢰
- 2006년 2월 8일 : 시굴조사 계획서 제출
- 2006년 2월 27일 : 문화재청허가(제2006-101호)
- 2006년 3월 28일 : 현장조사착수
- 2006년 5월 11일 : 지도위원회의 개최
- 2006년 5월 18일 : 지도위원회의 결과보고 및 발굴조사기간 연장신청
- 2006년 7월 10일 : 현장조사완료

본 조사를 위한 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조 사 단 장 : 장 경 호(前 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 도 위 원 : 김 동 현(문화재위원,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지 건 길(문화재위원,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김 동 욱(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유 봉 학(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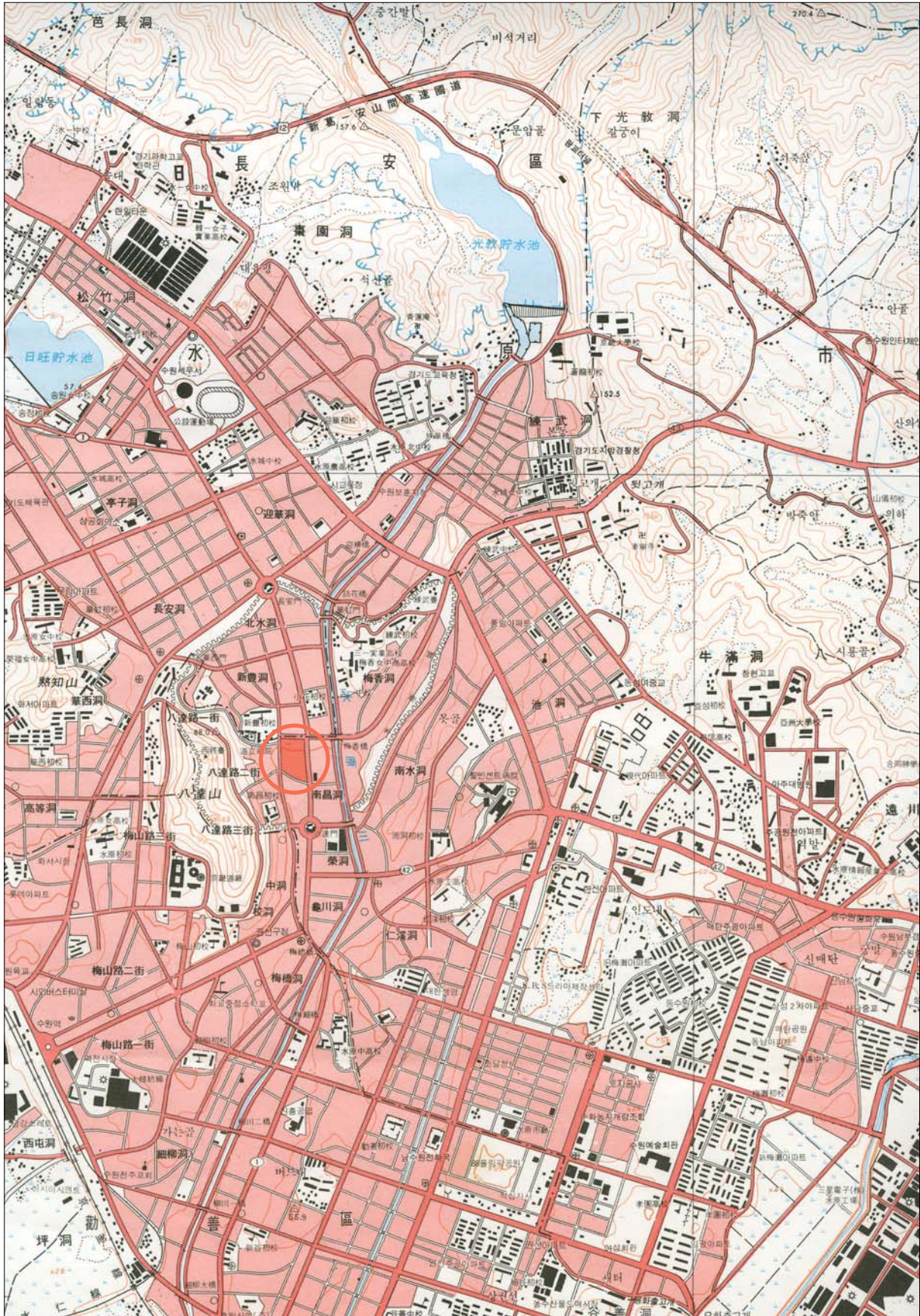
이 남 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책임조사원 : 정 해 득(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現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조 사 원 : 이 충 렬(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現 국방문화재연구원)

보고서는 작업은 조사를 담당한 이충렬과 유물관리팀이 나누어 진행하였다. 유구의 원고는 이충렬이, 유물의 원고는 우승희(유물관리팀 연구원)가 작성하였으며 정해득이 원고를 검토한 후 고찰과 맺음말을 작성하였다. 유구와 유물의 도면은 유물관리팀에서 담당하였는데 전자도면은 조은정(유물관리팀 연구원), 안진희(유물관리팀 위촉조사원)이 맡아 주었고, 유물사진은 양석우(유물관리팀 위촉조사원)가 촬영하였다. 도면과 사진의 편집은 우승희가 담당하였다.

부록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실시한 토양단면조사 내용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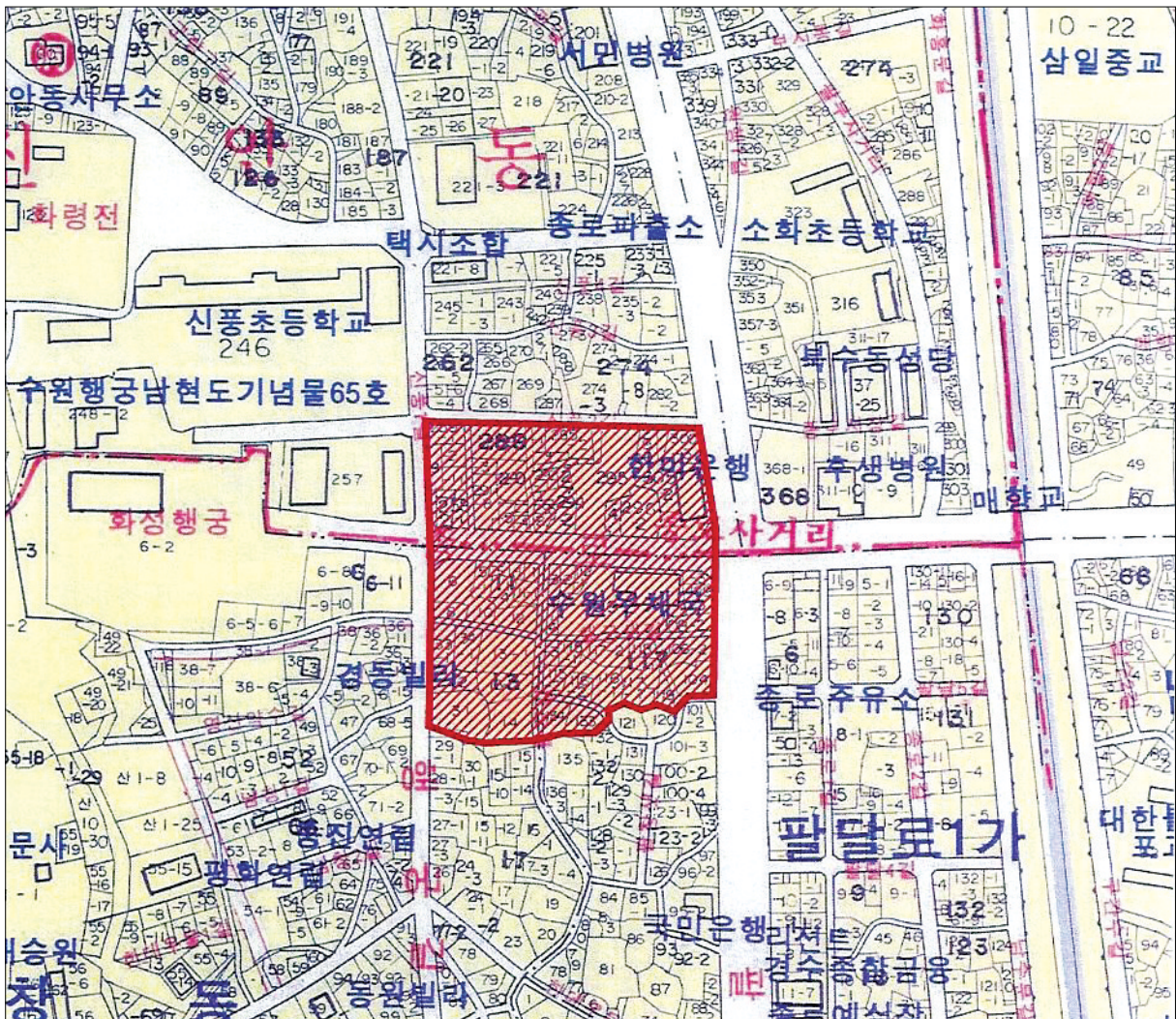
도면 1. 유적 위치도(1:25,000)

Ⅱ. 遺蹟의 位置 및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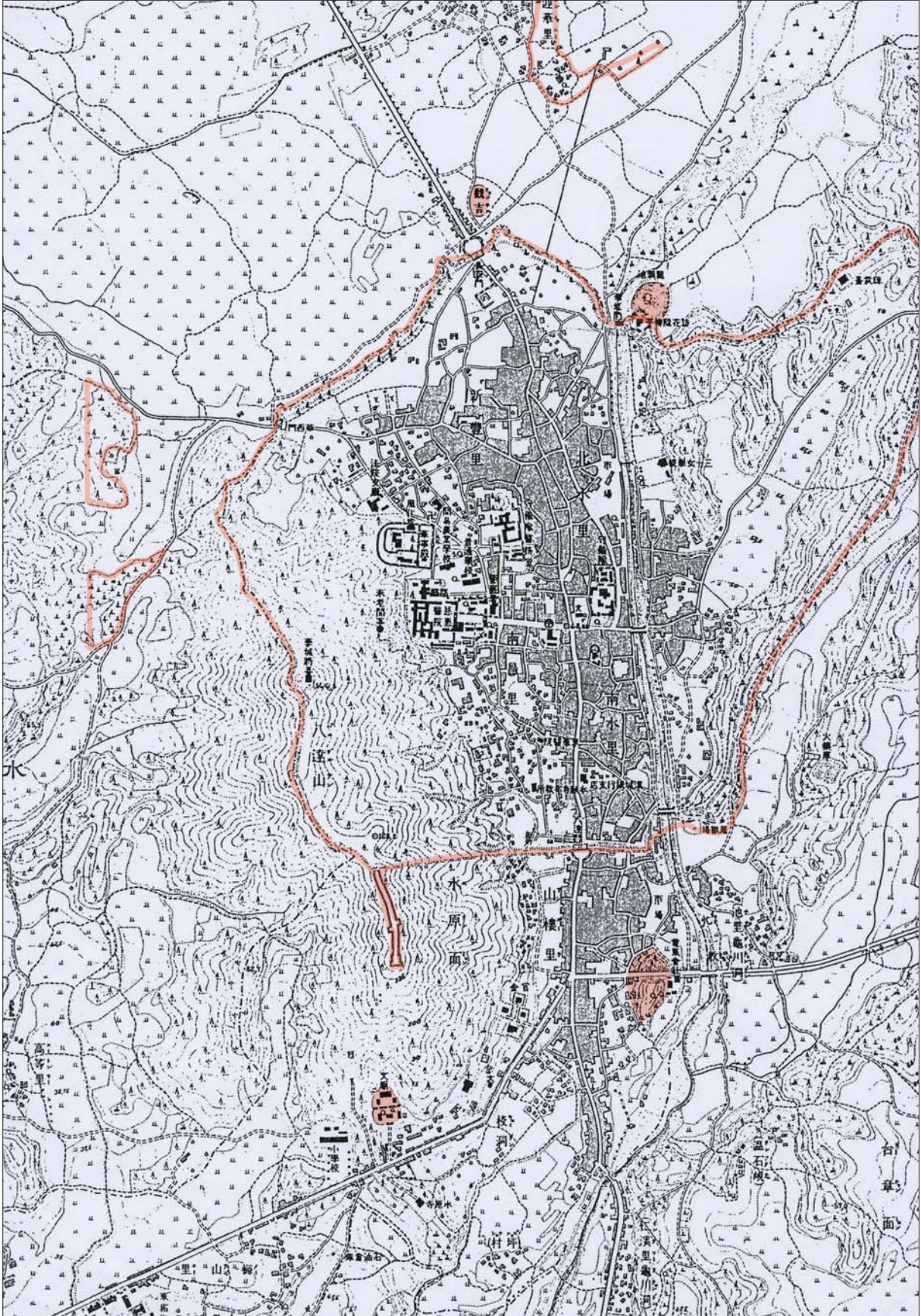
1. 遺蹟의 位置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258-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조사면적은 약 22,100㎡(약 6,600평)이다. 조사지역의 서쪽은 화성행궁이고 동쪽으로는 장안문에서 팔달문을 관통하는 도로가 남북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이 도로에서 동쪽으로 약 50m 떨어져 수원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지역은 팔달산 동쪽의 평야지대로서 조선 제22대 정조에 의해 수원부의 새로운 읍치로 결정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원부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도시의 발전이 수원지역에서 가장 일찍 시작되었고, 해방이후에는 수원시 승격으로 인해 도시가 발전해 감에 따라 가장 변화했던 이곳은 지하에 각종 시설물의 매설과 이설이 이루어져 도시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시설과 전력·통신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도면 2. 유적주변 지적도



도면 3. 근세 한국 일만분지일지형도(조선총독부, 1917년)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화성행궁 앞의 광장조성 사업에 앞서 화성관련 미복원 시설의 확인과 정비를 위해 주택과 시설물을 이전하였다. 도로로 사용되었던 일부 지역과 단층 목조건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지하실을 갖춘 2·3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현재는 건물을 철거한 후 복토되어 원지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도면 1~3)

2. 周邊遺蹟 現況 및 歷史的 背景

수원지역은 대부분 저평한 구릉지대 및 평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고고유적을 선사와 역사시대로 구분한다면 대체로 선사유적은 산지와 구릉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역사유적은 평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수원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굴조사된 경우는 아직 없으나 과장동¹⁾ 및 옛 수원지역인 대야미동²⁾에서 타제석기가 수습되었고 인근의 용인지역에서도 평창리 유적³⁾을 비롯하여 수지읍 죽전지구, 보정리 등지⁴⁾에서 유물이 수습되고 있어 향후 수원지역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신석기시대의 유적도 아직까지 정식 발굴 조사된 경우는 없으나 서둔동 인근의 꽃피⁵⁾에서 즐문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고 인근의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읍 상갈리에서 즐문토기편이 수습되고 있어 앞으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최근 2002년 조사된 울전동유적⁶⁾과 2003년 조사된 울전동Ⅱ유적⁷⁾, 이목동유적⁸⁾, 팔달산 지석묘⁹⁾, 구운동·금곡동·호매실동 유물산포지 및 추정지석묘¹⁰⁾ 등이 있다. 이밖에도 수원의 남쪽으로 화성시의 경계인 고금산유적¹¹⁾과 화성 천천리유적¹²⁾ 등의 발굴조사를 통해 차츰 수원 일대 청동기시대 유적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최근 수원 이의지구 지표조사¹³⁾에서도 수기의 추정 지석묘

1) 이용조·하문식, 1987, 『板橋~九里, 新葛~半月間 高速道路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박물관.

2) 경기도박물관, 1999,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I』.

3)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경기도박물관, 2000, 『용인 평창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신대학교박물관, 1999, 『용인시 죽전지구 문화유적 및 민속조사보고서』.

5) 기전문화재연구원·수원시, 2000,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6) 기전문화재연구원·대한주택공사, 2004, 『수원 울전동유적』.

7) 기전문화재연구원·대한주택공사, 2005, 『수원 울전동Ⅱ 유적』.

8) 기전문화재연구원, 2008, 『수원 이목동 유적』.

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6, 『水原市史』上, 수원시, 162쪽.

10) 주 5)의 보고서.

11)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華城 古琴山遺蹟』.

12) 한신대학교박물관, 2002, 『華城 泉川里遺蹟』.

13) 기전문화재연구원·고려문화재연구원·경기지방공사, 2005, 『수원 이의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4) 임병태, 1982, 『수원 서둔동 주거지 발굴』, 『박물관신문』.

15) 한신대학교박물관, 2002, 『花山古墳群』.

16) 숭실대학교박물관, 1999, 『京釜高速鐵道 上里區間文化遺蹟 發掘調査 現場 指導委員會 資料』.

1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龍仁 竹田地區 2地區 文化遺蹟 情密試掘調査 指導委員會 資料』.

18)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器興 葛舊(3) 宅地開發豫定地區內 葛舊里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1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龍仁 寶亭里 소실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및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울전동의 남서쪽에 위치한 서둔동 유적¹⁴⁾을 들 수 있으며, 삼국시대 유적은 고금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화산 백제고분¹⁵⁾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 수원의 주변지역인 봉담읍 왕림리, 당하리¹⁶⁾, 용인 죽전리¹⁷⁾, 구갈리¹⁸⁾, 보정리¹⁹⁾ 등지에서 백제·신라시대 고분 및 생활유적이 조사된 바 있어 근래 이 시기의 고고학적 자료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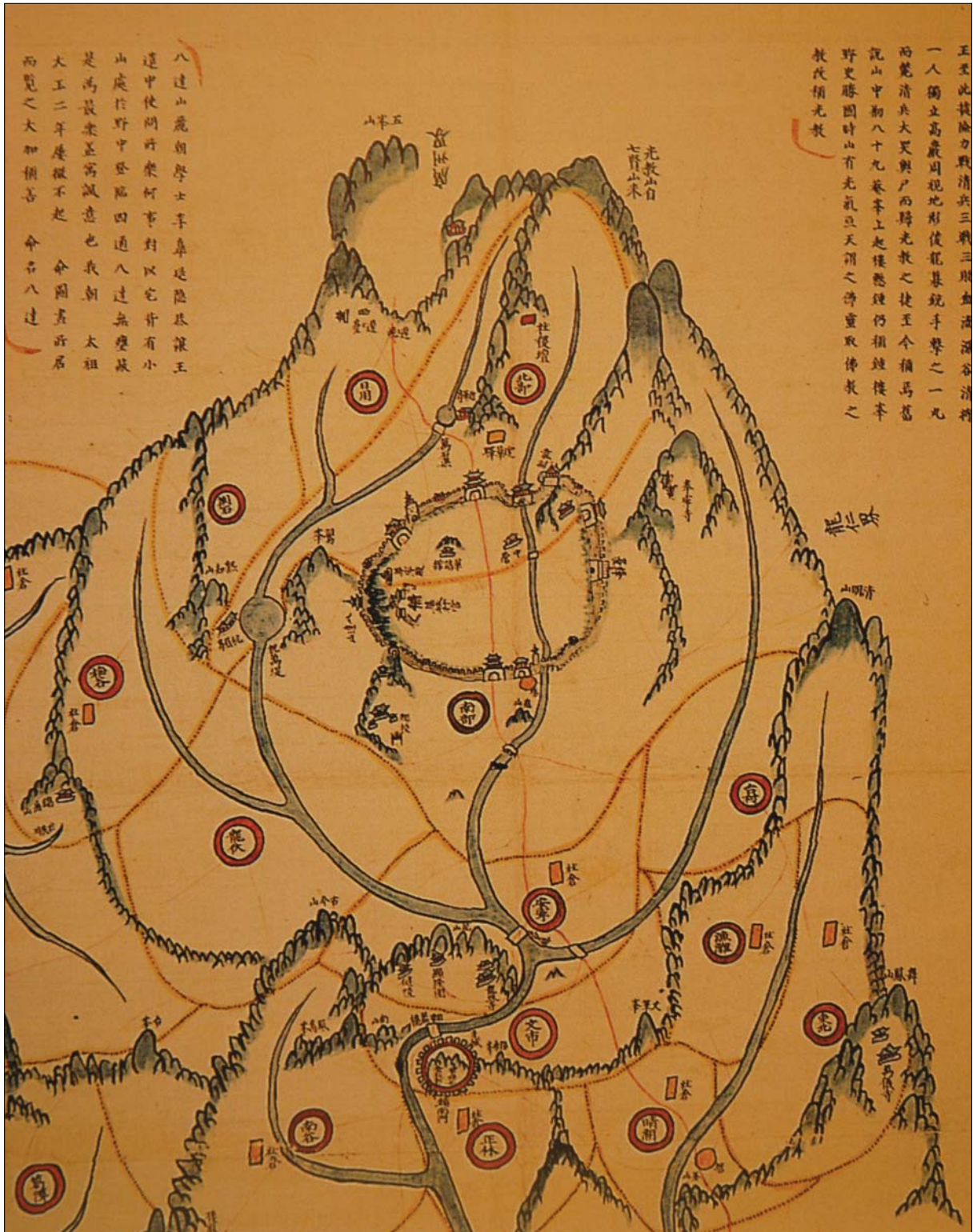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수원 주변 지역의 고고유적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유적명	소재지	종류	시대	비고
1	이목동 유적	이목동 424		조선	2003년 발굴
2	이목동 유물산포지 1	이목동 196-1	유물산포지	조선	
3	이목동 유물산포지 2	이목동 산 31-3부근	유물산포지	고려~조선	
4	꽃피 유적	화서 2동 391	제사유적	신석기 외	1997년 발굴
5	여기산(서둔동) 유적	서둔동 여기산	주거지	청동기 외	1984년 발굴
6	입북동 유물산포지 1	입북동 115	유물산포지	조선	
7	입북동 유물산포지 2	입북동 188	유물산포지	조선	
8	입북동 유물산포지 3	입북동 170	유물산포지	조선	
9	금곡동 유물산포지 1	금곡동 60 일대	유물산포지	청동기~조선	
10	금곡동 유물산포지 2	금곡동 427-3	유물산포지	통·신~조선	
11	금곡동 유물산포지 3	금곡동 406~414-1	유물산포지	근대	
12	금곡동 유물산포지 4	금곡동 568~571	유물산포지	근대	
13	금곡동 도기요지	금곡동 산23	요지	통일신라	
14	금곡동 자기요지	금곡동 산54	요지	조선	
15	호매실동 유물산포지 1	호매실동 650	유물산포지	청동기~조선	
16	호매실동 유물산포지 2	호매실동 산43-11	유물산포지	청동기	
17	호매실동 추정지석묘 1	호매실동 647-1	분묘	청동기	
18	구운동 유물산포지 1	구운동 251-1	유물산포지	청동기~조선	2002년 발굴
19	구운동 유물산포지 2	구운동 31~34	유물산포지	백제~조선	
20	울전동 유물산포지 2	울전동 73-8	유물산포지	청동기	
21	울전동 유적	울전동 산38-2 일대	분묘·주거지등	청동기~조선	2002년 발굴
22	울전동Ⅱ 유적	울전동 산168-81 일대	분묘·주거지등	청동기~조선	2003년 발굴
23	당수동 유물산포지 1	당수동 산 67일대	유물산포지	청동기	
24	당수동 유물산포지 2	당수동 89-3	유물산포지	청동기 외	
25	당수동 유물산포지 3	당수동 312일대	유물산포지	청동기 외	
26	고색동 유물산포지	고색동 7-131~133	유물산포지	청동기 외	
27	고금산 유적	오목천동 산 48 외	유물산포지	청동기 외	2002년 발굴
28	화성 기안리 유적	화성시 매송면 기안리	제철지 외	초기철기	2003년 발굴
29	화성 천천리 유적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주거지	청동기	2002년 발굴

조사지역은 통일신라·고려·조선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심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변두리였다. 조선 초 한림학사 李穡의 故事와 수원이읍 당시의 기록으로 보건대 이고의 후손 몇 가구만 살고 있었던 한적한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이 역사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1789년 현릉원의 천봉에 따라 화성시 송산동·안녕동 일대에 있던 수원부 읍치를 이곳으로 이전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1794년에는 ‘화성성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5년 전에 이전한 수원부 읍치를 증축하여 화성행궁이라 하였

고, 주변 가로망이 재정비 되는 변화를 겪었다.²⁰⁾

화성행궁은 수원유수부 관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평상시에는 정2품 이상의 대신이 임명되는 유수가 집무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궁은 팔달산을 등지고 관아 건물앞에 T자형 가로구조를 기본으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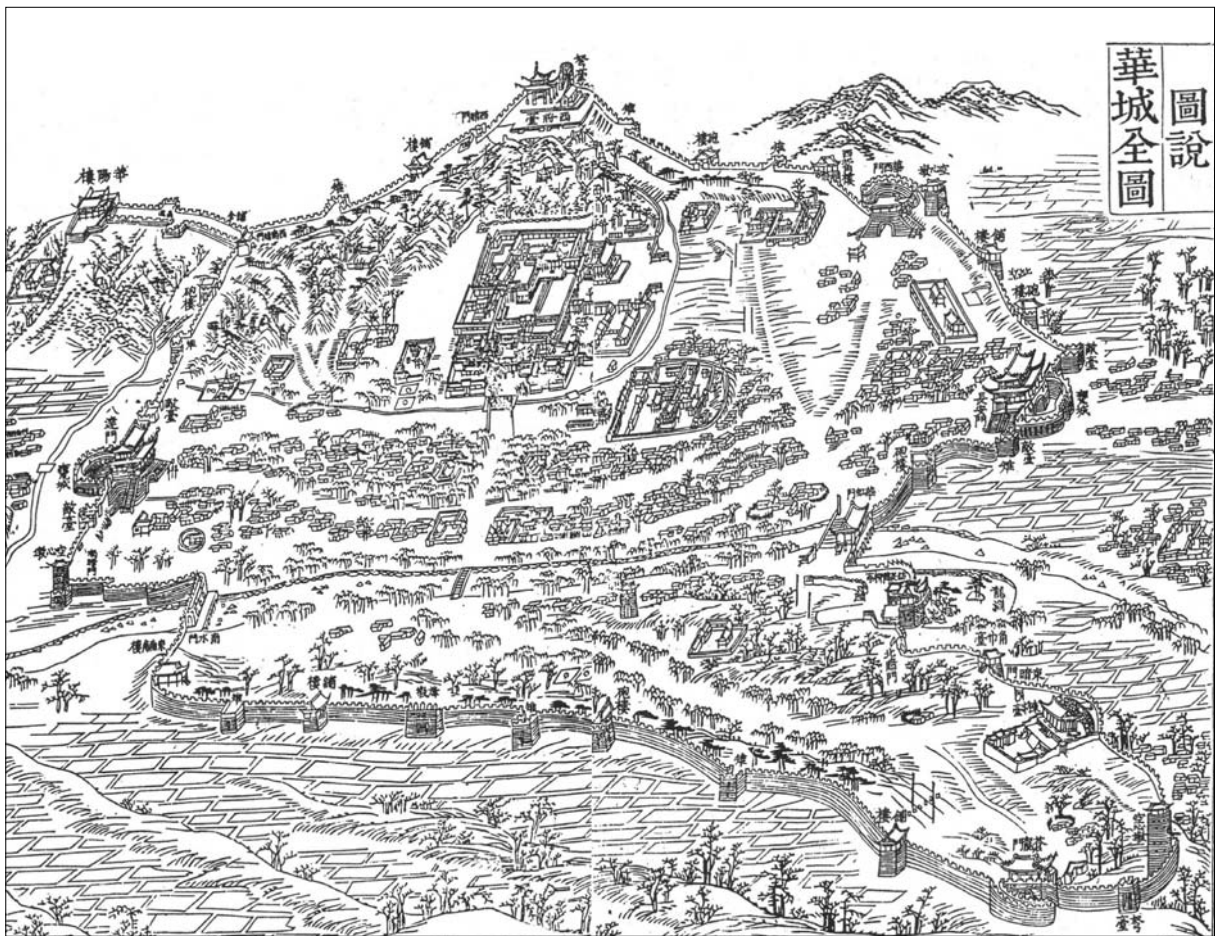


도면 4. 수원부지도(1872년)

되었다. 화성행궁앞 광장 조성부지 안에는 신평루 앞을 흐르던 명당수와 종로사거리에서 화성행궁으로 들어오는 도로, 도로변의 관청부속 건물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²¹⁾ 그리고 명당수에 놓인 신평교가 있고, 신평교 앞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었다.

이 시설들은 1920년대 이후 화성행궁이 근대적인 시설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맞게 된 것인데, 명당수는 복개되고, 명당수를 건너던 신평교 역시 아스팔트 도로와 함께 묻힌 결과가 되었다. 신평교에 대해서는 『화성성역의궤』에 ‘길이가 14척, 너비가 35척이며 역시 신평교라고 이름지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화성행궁은 1995년 이후 1999년까지 5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 1차 복원공사에 착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²²⁾ 그 외에도 화령전 전사청지,²³⁾ 화성행궁 담장지²⁴⁾ 등 행궁 주변의 시설물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도면 5. 화성전도(『화성성역의궤』에서 발취)

20) 정혜득, 1999, 「정조대 수원 이읍과 이후의 변화양상」 『경기사학』 제3호, 경기사학회.

21) 『華城城役儀軌』 「行宮全圖」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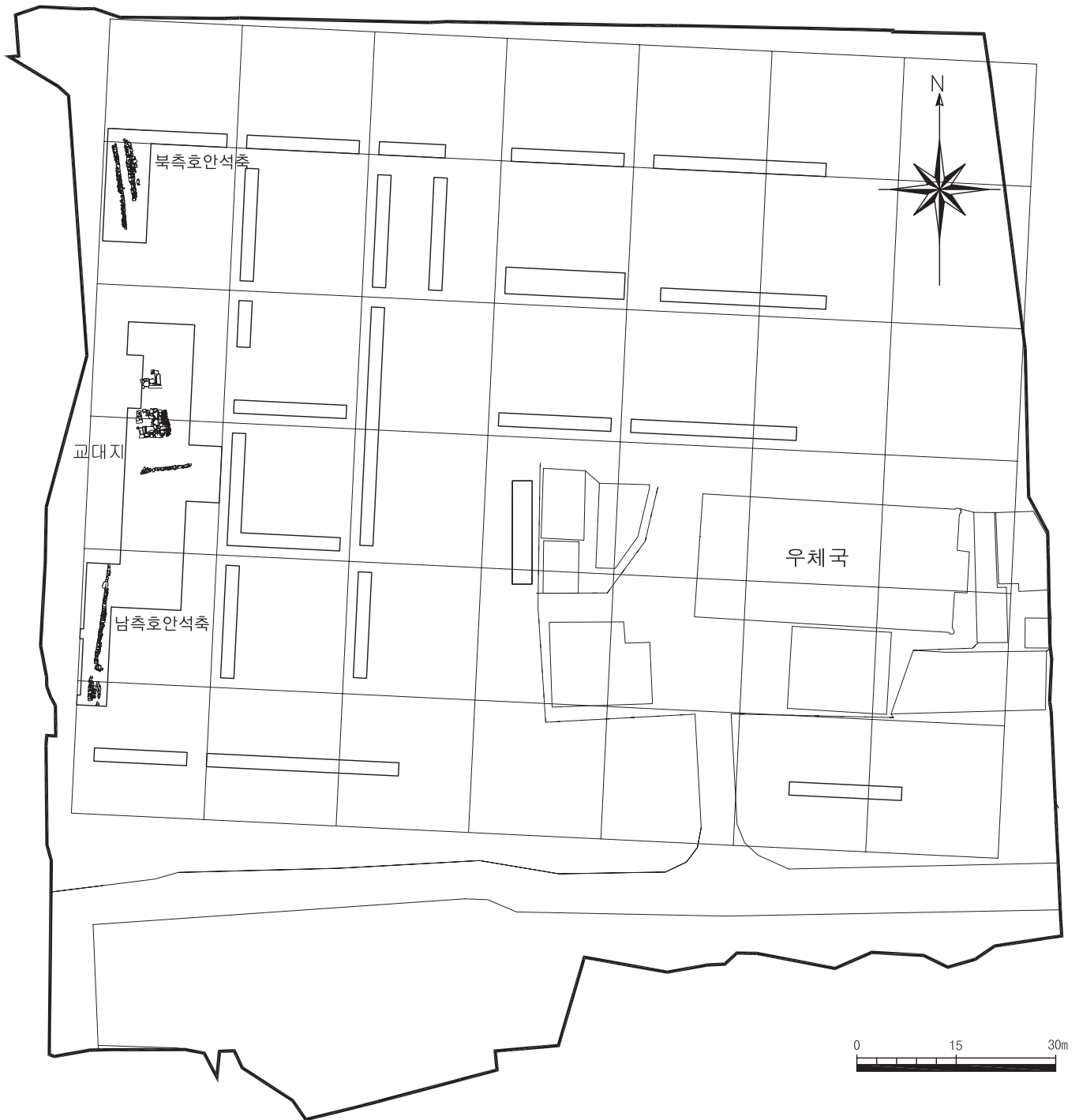
22) 수원시·한양대학교·수원대학교, 1996, 『華城行宮址』의 2~5차 보고서 참조.

23)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華寧殿典祀廳址』.

24)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화성행궁담장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Ⅲ. 조사 내용

조사지역은 기록상 화성행궁의 앞마당과 명당수, 신평교, 홍살문, 진입로, 진입로 주변의 건물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 시설들은 수원부의 새로운 읍치로서 1789년 수원부 관아가 일단 세워졌다



도면 6. 화성행궁앞 광장조성부지내 시·발굴조사 전체유구배치도(1:900)

가 1794년부터 1796년까지 화성성역이 진행될 때 규모를 더욱 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9세기의 기록물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다가 일제시기 화성행궁의 용도변화와 파괴과정과 함께 조사지역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1949년 수원시 승격이후에는 수원시의 중심지로서 행정관청과 우체국 등 주요 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였기 때문에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었다. 1980년 이후에는 증 개축이 이루어져 3~4층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조사지역에 입지해 있었다.

경기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5년 건물들이 철거되었는데, 대부분의 건물이 지하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을 옮기고 그 자리는 다시 복토가 되었다. 대부분의 건물터는 2~3.5m 가량 복토가 이루어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2차선 도로로 사용되던 곳은 상·하수도, 전기선로, 통신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매설되어있는데 아직 사용 중인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조사가 가능한 곳은 지하실이 없었던 단독주택지와 골목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조사는 20×20m 단위의 그리드를 구획한 후, 폭 2m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남↔북, 동↔서 방향으로 길이와 폭을 조절하여 트렌치를 설치하여 생토층까지 굴착하였다. 그리고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는 지적도를 대조하며 트렌치를 확장하여 그리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는 다음과 같다.

가. 遺構

1. 明堂水 護岸石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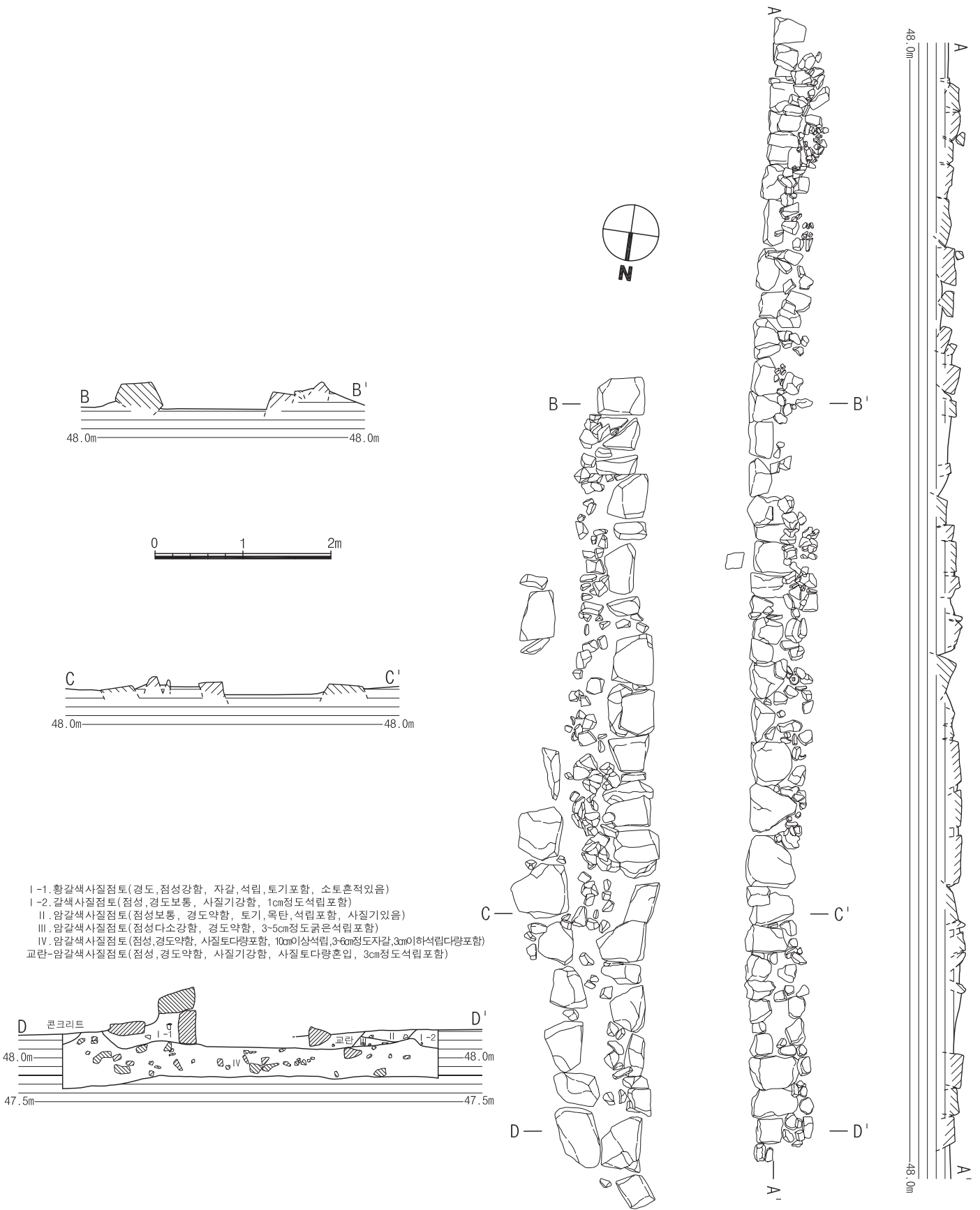
明堂水는 도성 내부를 지나가는 물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한강을 외명당수, 청계천을 내명당수로 하였다. 華城과 華城行宮이 건립된 수원의 경우 수원천을 외명당수로 상정하고 팔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행궁 앞으로 끌어들여 내명당수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궁 앞의 명당수는 팔달산의 水源이 부족하기 때문에 雨期에만 물이 흐르는 乾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하수도가 매설되기 전까지는 생활하수로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현재 2개소에서 확인된 호안석축의 축조방식은 북측의 경우 전통방식인 평돌쌓기로 이루어져 있으나 남측의 경우 어떤 이유로 호안이 축소가 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견치석 쌓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호안석축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북측과 남측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1) 북측 호안석축(도면 7. 사진 3·4)

현재 신흥초등학교가 있는 조사지역의 북서쪽 트렌치에서 확인되었으며, 시굴트렌치상의 동쪽끝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매설로 상당부분 교란되어있는 상태이다. 치석된 석재가 확인되어 컨트롤 트렌치를 설치하여 안정된 층위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그리드를 확장하여 방향과 규모를 파악했다.

현재 확인된 석축의 규모는 폭 2.4~3.4m 이며, 길이는 13.5m 이다. 50~70cm 크기의 치석된 석재들로 내부열을 구성하고 있으며 바깥쪽은 10~30cm 크기의 할석들로 채워져 있다. 주축방향은 N-5°-E 이며 해발고도 48m 내외에 해당하며 현재 유구의 높낮이를 측정한 결과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길을 유도했던 것



도면 7. 북측 호안석축(1:60)

으로 파악된다.

유구의 북쪽에서는 한열의 석렬이 더 확인되었는데, 콘트롤 트렌치를 설치하여 확인한 결과 바깥쪽 열이 같이 축조되었다가 폭을 줄인 것으로, 수량의 감소등으로 인해 후대에 호안석축의 폭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이 흘렀던 석축의 내부 바닥면까지 교란된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현대의 쓰레기와 매립된 토양이 퇴적되어있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복개되기 전까지 빨래터 등으로 사용되어졌으므로 그에 따른 교란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남측 호안석축(도면 8, 사진 3·5·6)

조사지역의 남서쪽에서 확인된 호안석축은 북쪽에서 확인된 석축과는 다른 축조방식으로 쌓여 있으며 기반하고 있는 바닥층, 확인된 유물에 의하면 동쪽렬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새로 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확인된 석축의 규모는 폭 3~3.7m 이며, 길이 21m이다. 30~80cm 크기의 치석된 석재들로 축조되었으며, 북측의 호안석축과 같이 작은 크기의 할석으로 바깥쪽을 채웠을 것으로 추정되나 후대의 교란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주축방향은 N-15°-E 이며 해발고도 47m 내외에 해당한다.

조사중 서쪽 호안석축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통신선, 가스선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의 석축이 유실되었으며, 후대에 쌓은 석축으로 인해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으나 평돌쌓기한 석축의 구조는 확인되었다.

2. 新豐橋 橋臺址 및 殘存遺構 (도면 9, 사진 7~10)

복원된 화성행궁의 홍살문 정면에 위치해 있으며, 상수도관 등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덩이를 그리드로 설정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현재의 홍살문에서 동쪽으로 약 20m 지점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의 노출당시 동쪽면을 제외한 삼면이 모두 매설물로 인해 파괴되어 석재들을 모두 매립한 상태였으나 규모와 진행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석재들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매립된 구조물들을 제거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나갔다.

확인된 교대의 잔존 규모는 길이 4.2m, 폭 1.7m이며, 50~100cm 크기의 치석된 석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10~40cm 크기의 할석으로 뒷채움이 되어 있으며, 트렌치를 설치하여 확인한 결과 수직으로 굴토하여 내부에 장대석등으로 열을 쌓고 할석으로 채운 것을 확인하였다.

현대의 상수도와 하수도가 두차례 걸쳐 매립되는 과정에서 중간부분이 끊어졌으나 유구의 바닥면에서 수상면과 교대의 최하단에 해당하는 석재가 확인되어 신평교의 너비를 추정한 결과 10.2m 로 확인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 신평교 설명에는 ‘길이가 14척(약4.24m), 너비가 35척(약10.6m)이며 역시 신평교라고 이름지었다’ 고 기술되어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대의 경우 최하단 석재의 규격은 170×60×40cm 정도이며, 상부로 올라갈 수록 작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리에 사용된 석재들에서는 채취당시의 썩기자국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상단으로 사용된 석재들도 일부 확인되었으나, 교란되어 제자리는 아니었다.

3. 舊道路의 地表 및 盛土狀態 (사진 11)

조사지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했던 트랜치에서 확인되었는데, 최근까지 왕복 2차선의 도로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하상퇴적층으로 파악된 생토면 위에 화성행궁의 조성 당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성토한 토층으로²⁵⁾ 판단되는 암갈색의 사질토가 확인되었으며, 그 위에 갈황색의 사질토로 화강암의 부스러기로 이루어져있는 여러 층의 토층이 확인되었다.

행궁조성 당시의 도로와 지표면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갈황색의 토층은 현재 수원 우체국의 앞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폭 3.8m 길이 38m 정도의 범위만이 확인이 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도로는 신평동 일대의 간선도로로서 상수도 하수도 매설이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의 극히 일부만이 잔존해 있는 상태이다.

나. 出土遺物

1. 백자 발(도면 10-1, 사진 12-①)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백자 발편으로 전체의 1/3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으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외면 일부에 유약이 굽쪽으로 흐르며,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기면에 철반이 있다. 내면의 발색이 고르지 않다. 굽은 직립굽으로 접지면을 고르게 정리하였는데 가는 모래가 소량 부착되어 있다. 복원구경 15.0cm, 높이 9.2cm

2. 백자 발(도면 10-2, 사진 12-②)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백자 발편으로 전체의 3/5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으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외면에 부분적으로 유약이 두텁게 묻혀있으며,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내외면 전체에 빙열과 회전물레흔이 있다. 굽은 깊게 찢으며, 내저면과 접지면에 굽은 모래가 부착되어 있고, 접지면을 고르게 정리하였다. 복원구경 14.0cm, 높이 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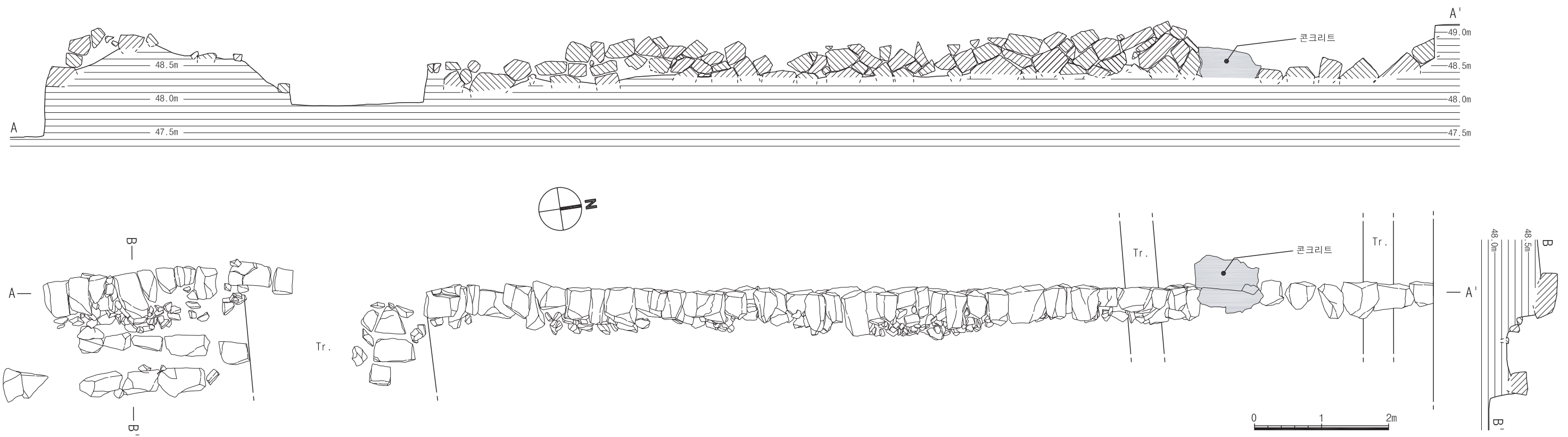
3. 백자 발(도면 10-3, 사진 12-③)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백자 발편으로 전체의 1/2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으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면 일부에 유약이 묻혀있고, 내외면에 철반이 있다.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내저면은 굽은 모래가 굽에는 가는 모래가 부착되었다. 굽은 직립굽으로 내면을 깊게 찢다. 접지면은 고르게 정리되었다. 복원구경 12.9cm, 높이 7.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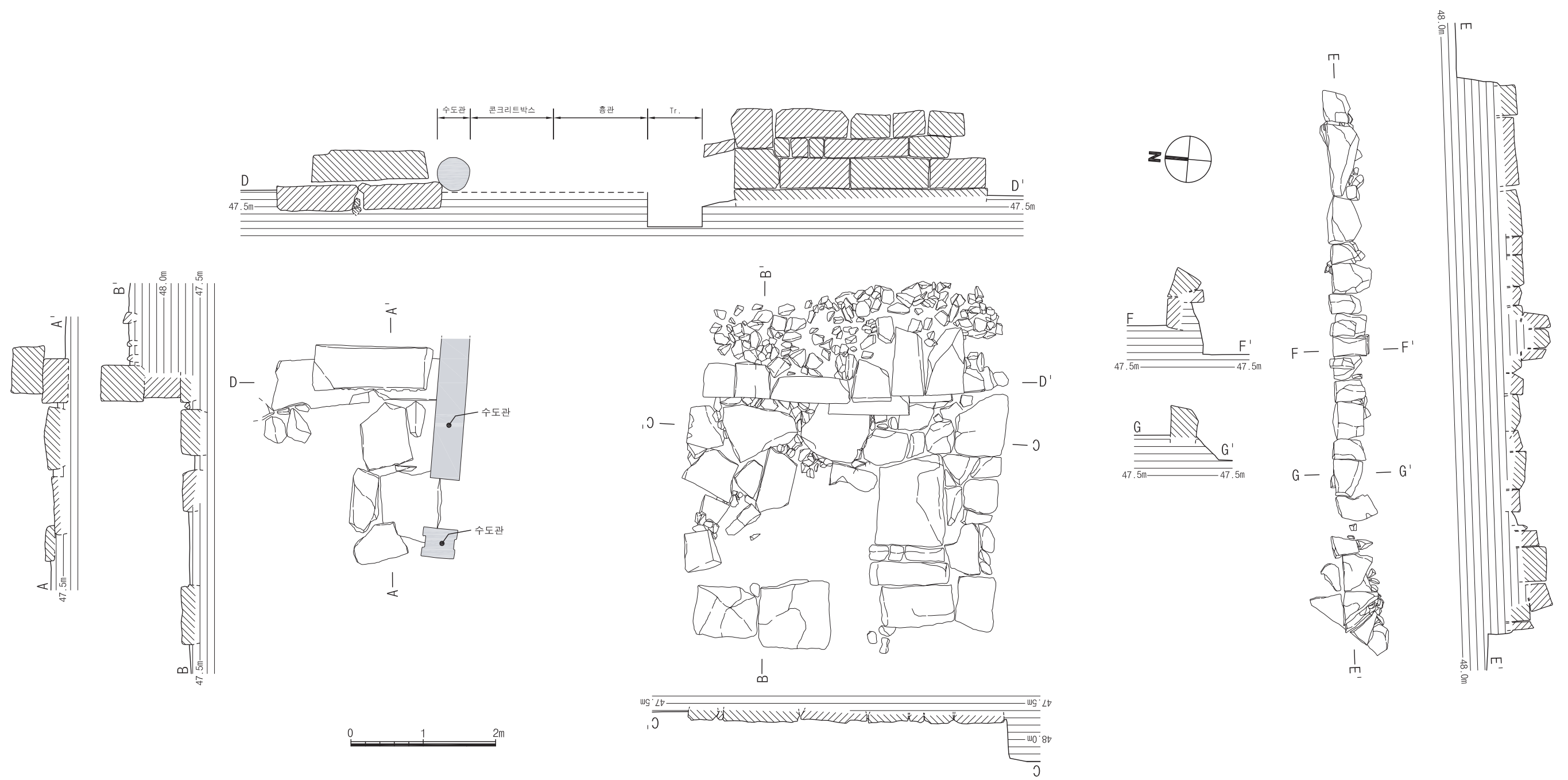
4. 백자 발(도면 10-4, 사진 12-④)

호안석축 남측에서 출토된 백자 발로 저부와 신부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전면에 빙열이 있고, 내면에 철반이 있다. 외저면에 물레흔이 확

25)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토양단면의 과학적 분석을 의뢰한 결과 외부로부터 유입된 논토양을 이용하여 성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8. 남측 호안석축(1:60)



도면 9. 교대지(1:60)

인된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굵은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접지면은 고르게 정리되었다. 현높이 6.3cm, 굵경 5.0cm

5. 백자 대접(도면 10-5, 사진 13-③)

호안석축 남측에서 출토된 백자 대접으로 저부와 신부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으로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전면에 빙열 있고, 내외면에 철반이 있다. 내면에 물레흔이 희미하게 있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굵은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굵은 안굽이고 접지면을 고르게 정리하였다. 현높이 5.0cm, 굵경 5.0cm

6. 백자 발(도면 10-6, 사진 13-①)

호안석축 남측에서 출토된 백자 발편으로 기형의 1/4이 남아 있으며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내저면에 청화로 어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을 시문하였다.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고 면을 고르게 정리하였다. 높이 5.3cm, 복원구경 13.6cm

7. 백자 호(도면 10-7, 사진 13-②)

호안석축 남측에서 출토된 백자 호편으로 구연과 견부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으로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견부일부에 빙열이 있고, 내외면에 철반이 있다. 현높이 4.3cm, 복원구경 12.4cm

8. 백자 호(도면 10-8, 사진 13-④)

호안석축 남측에서 출토된 백자 호편으로 저부와 신부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의 입자는 치밀하다. 유약은 회녹색이다. 외면 일부에 유약이 흘러내리고, 내면 일부의 용융상태가 불량하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내외면에 철반이 있으며, 내저면에는 물레흔이 뚜렷하다. 굽에는 흙물이 섞인 가는 모래가 접지면과 저부에 부착되어 있다. 접지면은 매끈하게 정리되었다. 현높이 11.5cm, 굵경 7.4cm

9. 백자 대접(도면 10-9, 사진 14-①)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백자 대접편으로 저부와 신부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회녹색이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굽내저면은 산화되었고 외저면의 용융상태가 불량하다.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내저면 일부에 빙열이 있고 내외면에 철반이 있다. 굽내저면 일부에 흙물이 섞인 가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으며, 접지면은 매끈하게 정리되었다. 굽은 도립삼각형굽에 가깝다. 현높이 4.9cm, 굵경 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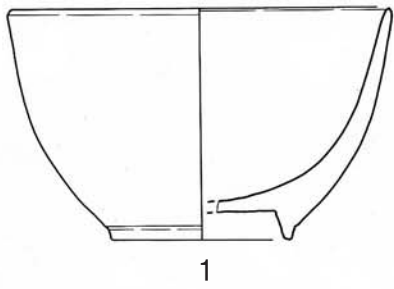
10. 백자 종지(도면 10-10, 사진 14-②)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백자 종지편으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내저면에 빙열이 있고 철반이 보인다. 저부와 굽내측면에 굵은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굽은 안굽으로 접지면을 고르게 정리하였다. 현높이 2.3cm, 굵경 4.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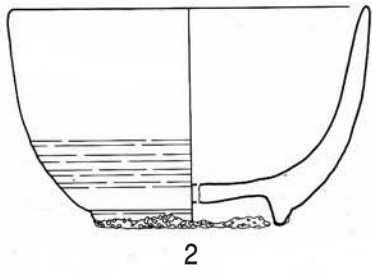
11. 백자 병(도면 10-11, 사진 13-⑤)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백자 병편으로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으로 내면은 시유하지 않았으나 일부는 흘러내렸다.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내외면에 철반과 빙열이 있다. 동체 내외면에 회전물레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굽내외면측에 굵은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굽은 직립굽이고 접지면을 고르게 정리하였다. 현높이 8.0cm, 굵경 5.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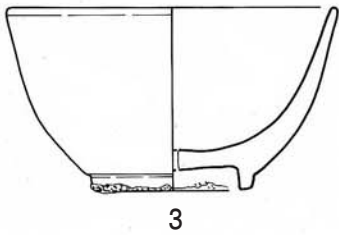
12. 백자 병(도면 10-12, 사진 14-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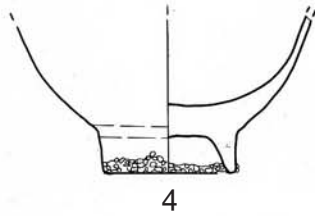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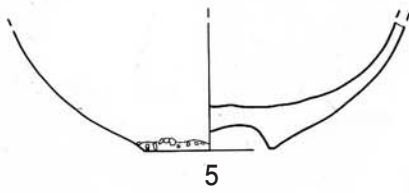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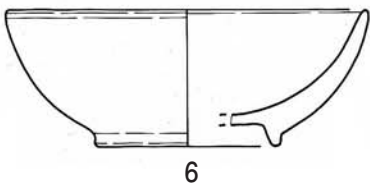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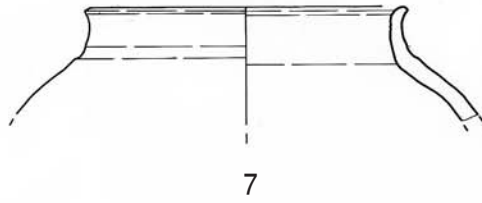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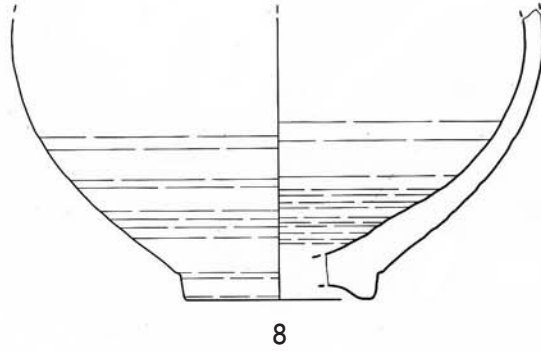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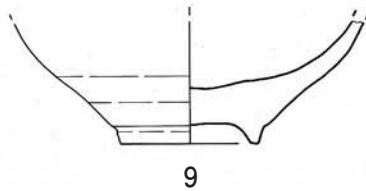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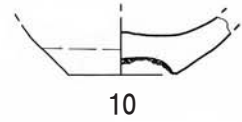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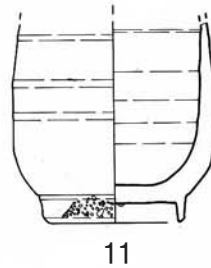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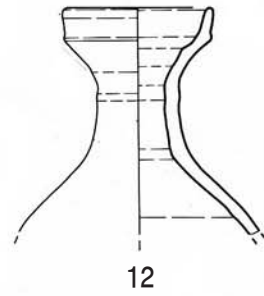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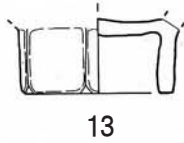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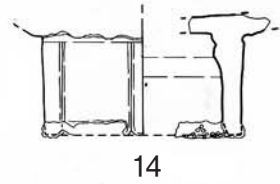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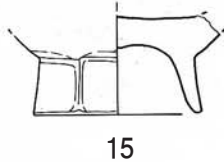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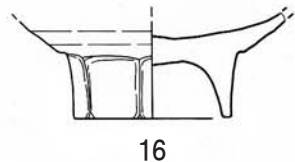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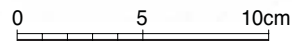
14



15



16



도면 10. 출토 유물

호안석축 남쪽에서 출토된 백자 병편으로 구경부일부와 견부일부만 남아있다. 구연은 반구형이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다.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경부내외면에는 물레흔과 접합시 조정흔이 보인다. 내외면에 철반이 있다. 현높이 9.0cm, 복원구경 5.7cm

13. 백자 제기(도면 10-13, 사진 14-③)

호안석축 남측에서 출토된 백자 제기로 굽만 남아있다. 태토의 입자는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다. 굽일부에 유약이 묻쳐있고, 굽내측면에 일부 시유되지 않았다.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내외면에 빙얼이 있다. 굽은 직립굽으로 7각이다.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으며, 면을 고르게 정리하였다. 현높이 3.0cm, 굽경 5.5cm

14. 백자 제기(도면 10-14, 사진 14-④)

호안석축 남측에서 출토된 백자 제기편으로 저부와 대각1/4만 남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의 입자는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다. 굽안쪽을 제외하고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불량하다. 내저면에 빙얼이 있다. 굽내면에 회전물레흔이 뚜렷하다. 내저부와 접지면에는 굽은 모래가 부착되어 있고, 접지면을 고르게 정리하였다. 굽은 7각으로 추정되며 3각이 확인된다. 현높이 5.0cm

15. 백자 제기(도면 10-15, 사진 14-⑤)

호안석축 북쪽에서 출토된 백자 제기편으로 저부와 굽1/2가량 남아있다. 태토의 입자는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다. 전면에 시유되었고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빙얼과 철반이 있다.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고, 면을 고르게 정리하였다. 굽은 5면이 확인되고 7각으로 추정된다. 현높이 3.9cm, 굽경 6.5cm

16. 백자 제기(도면 10-16, 사진 14-⑥)

호안석축 북쪽에서 출토된 백자 제기편으로 신부일부와 굽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의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다. 굽내면 일부는 시유되지 않았다. 시유상태 보통이다. 내외면에 빙얼이 있다. 굽내저면에 소성시 터진부분이 있다. 굽내측일부에 가는 모래가 부착되었으며, 접지면을 고르게 정리하였다. 굽은 도치된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각을 만들었으며, 5각이 확인된다. 현높이 4.3cm

17. 흑유자 대접(도면 11-1, 사진 14-⑨)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흑유자 대접편으로 추정된다. 기형의 1/5이 남아 있어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이며 입자가 치밀한 편이다. 유약은 흑갈색유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상태가 불량하다. 속심은 명암갈색이다. 전면에 빙얼이 있으며 내외면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현높이 7.3cm

18. 흑유자 병편(도면 11-2, 사진 14-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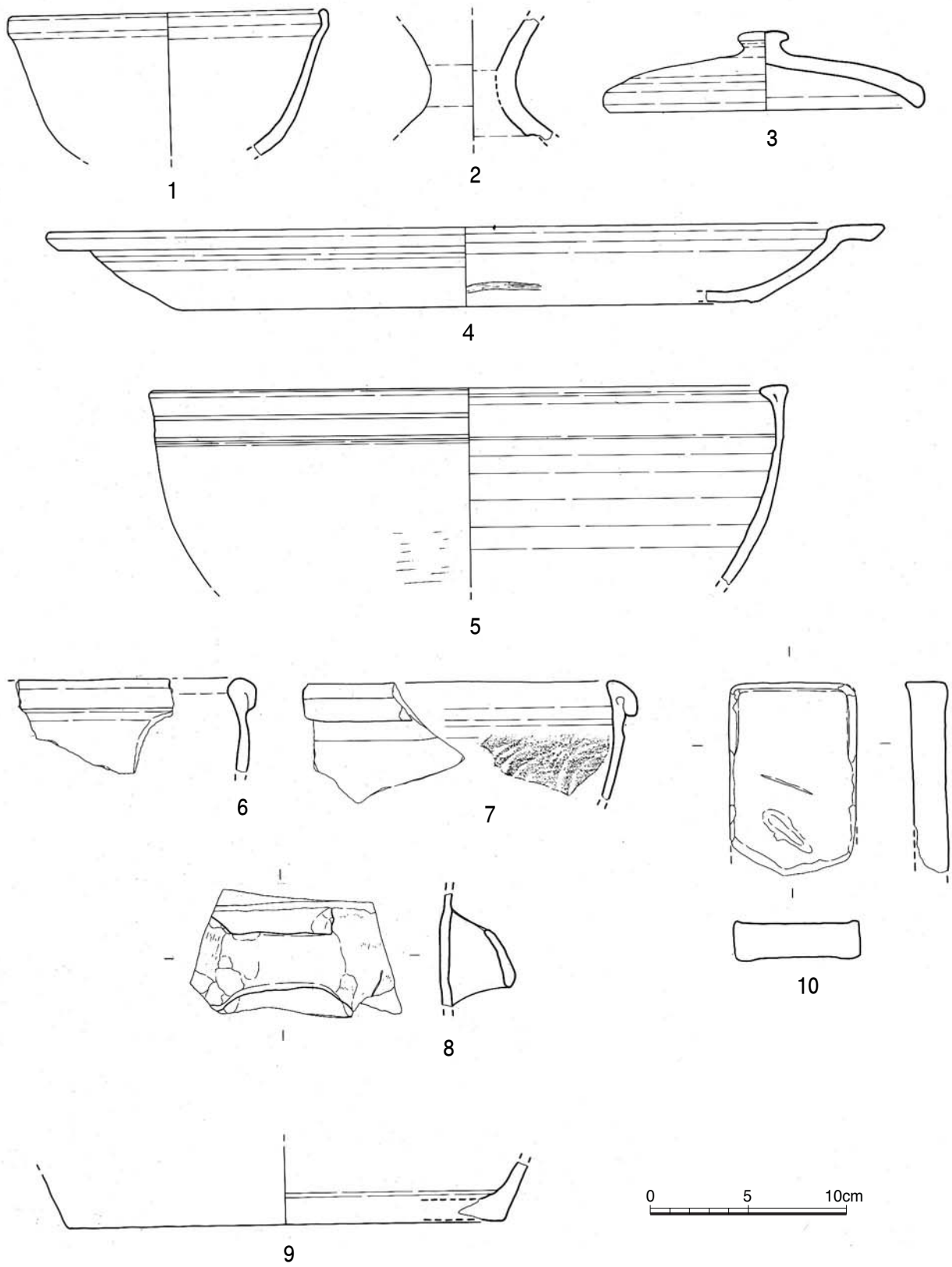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흑유자 병편으로 경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이며 입자가 치밀한 편이다. 유약은 흑갈색으로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시유상태는 불량하다. 현높이 6.2cm

19. 뚜껑편(도면 11-3, 사진 15-①)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경질의 뚜껑편으로 전체기형의 1/4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이며, 내면일부는 회흑색이다. 구연단은 안쪽으로 말아붙였다. 외면에는 물손질 정면후 깎기정면한 흔이 남아있다. 내외면이 산화되었다. 꼭지는 단추형이다. 높이 4.0cm, 복원구경 15.8cm

20. 반편(도면 11-4, 사진 15-②)

호안석축 남쪽에서 출토된 경질의 반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사립을 포함한 정



도면 11. 출토 유물

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흑색이나 외면의 신부중위에서 저부까지는 암회색이다. 속심은 회색이다. 외면 신부중위에는 저부에서 구연방향으로 도구를 이용한 정면흔이 남아있다. 저부의 정면상태는 깨끗하지 못하고 바닥과 저부인접부에 흠이 1줄 돌아간다. 내면에 회전물손질흔이 남아있다. 현높이 4.0cm, 복원구경 42.2cm

21. 동이편(도면 11-5, 사진 15-④)

교대지에서 출토된 경질의 동이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은 회흑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구연부는 안으로 말아 만들었다. 구연과 동상위에 침선이 돌려져 있고, 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동체하위는 시계방향으로 물손질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현높이 10.3cm, 복원구경 32.2cm

22. 도기 구연부편(도면 11-6, 사진 15-⑤)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경질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은 회흑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점토를 둥글게 말아 붙였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4.8cm

23. 도기 구연부편(도면 11-7, 사진 15-⑥)

교대지에서 출토된 경질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은 회흑색고 속심은 회색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둥글게 말아붙였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고, 내면에는 호상의 내박자흔이 있다. 현길이 6.1cm

24. 파수편(도면 11-8, 사진 15-⑩)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대상파수이다. 경질이며 내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에 파수부착후 무질서하게 물슬질한 흔적이 남아 있고, 내면에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5.8cm, 파수폭 3.2cm

25. 저부편(도면 11-9, 사진 15-⑩)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경질의 저부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황색이다. 동하부는 시계방향으로 깎기정면하였다. 현높이 3.0cm, 복원저경 22.2cm

26. 벼루(도면 11-10, 사진 15-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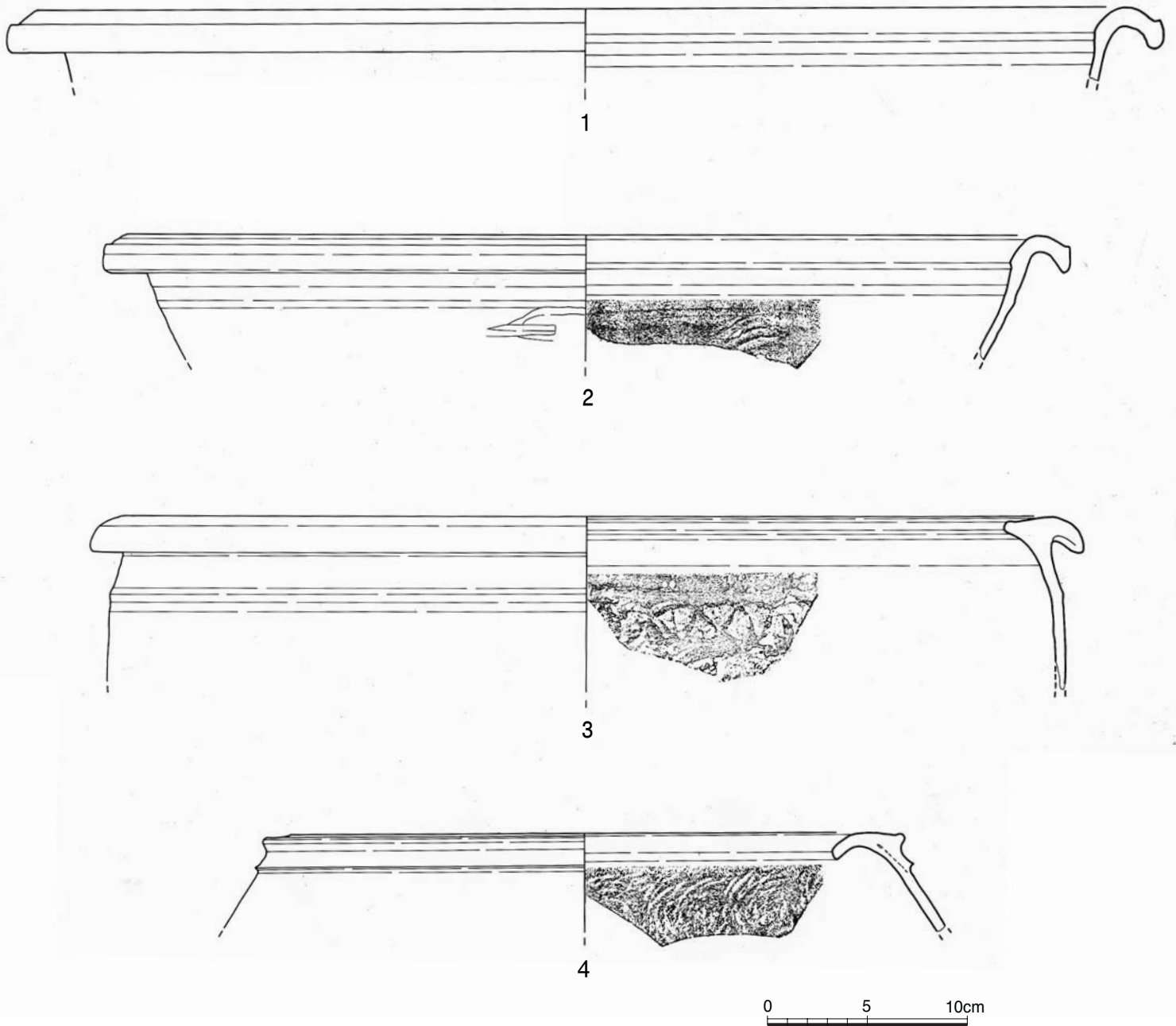
교대지에서 출토된 평면형태 장방형의 토제 벼루로 일부 결실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은 회흑색이나 마모되어 속심 색조인 회백색이 전면에 드러나 있다. 현길이 10.0cm, 폭 6.4cm, 두께 1.8cm, 무게 157g

27. 도기 구연부편(도면 12-1, 사진 15-③)

호안석축 남측에서 출토된 경질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은 회흑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말아 만들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내외면 일부 산화되었다. 현높이 3.7cm, 복원구경 54.6cm

28. 도기 구연부편(도면 12-2, 사진 15-⑦)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경질의 도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와 동체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은 회황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둥



도면 12. 출토 유물

글게 말았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다. 복원구경 25.8cm, 현높이 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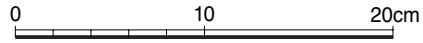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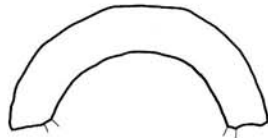
29. 도기 구연부편(도면 12-3, 사진 15-⑧)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경질의 도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와 동체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은 회흑색이고, 속심은 회색, 암회색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둥글게 말았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고, 내면에는 호상의 내박자흔이 있다. 내외면 일부 박리되었다. 현높이 8.7cm, 복원구경 46.4cm

30. 도기 구연부편(도면 12-4, 사진 15-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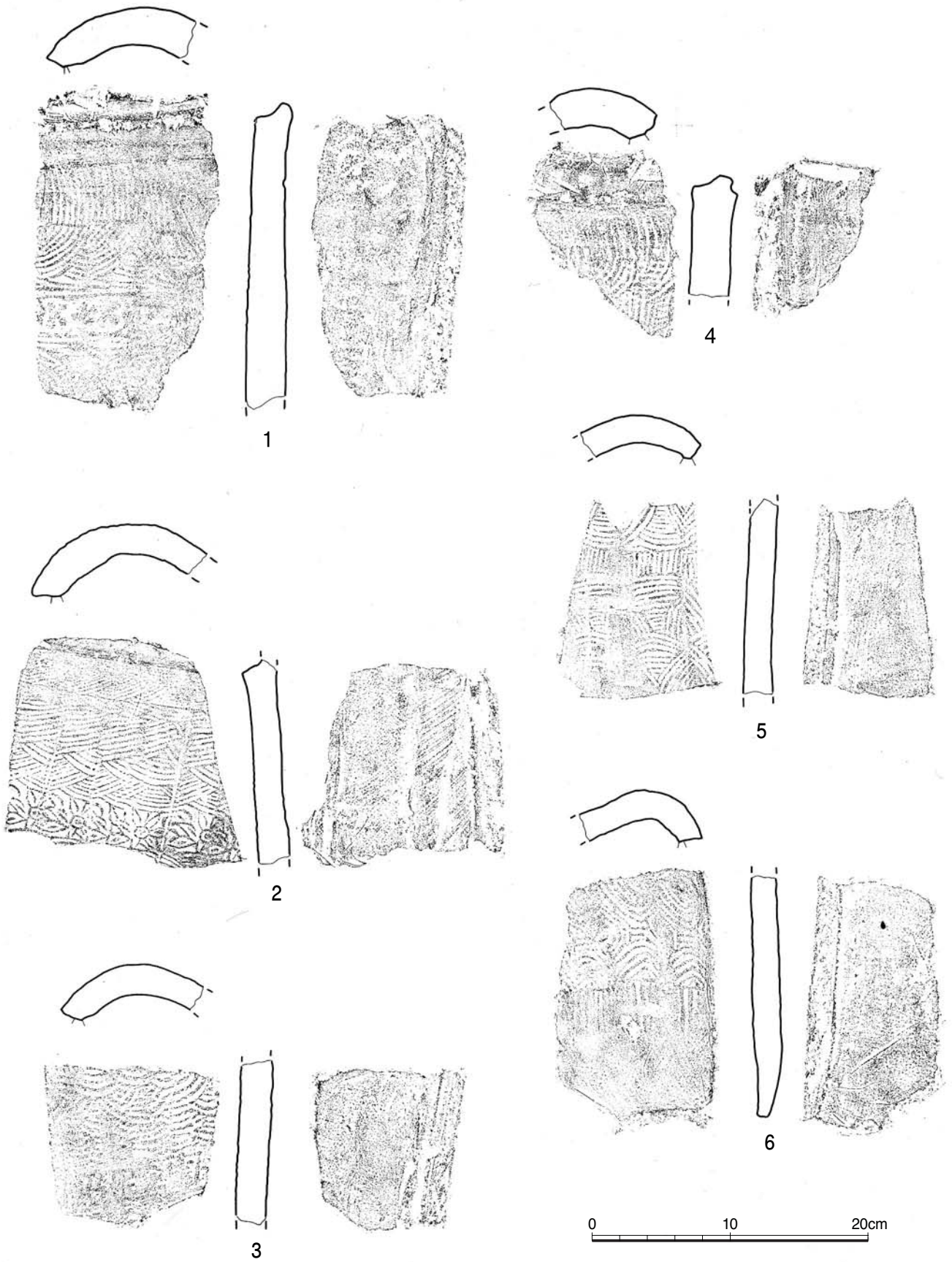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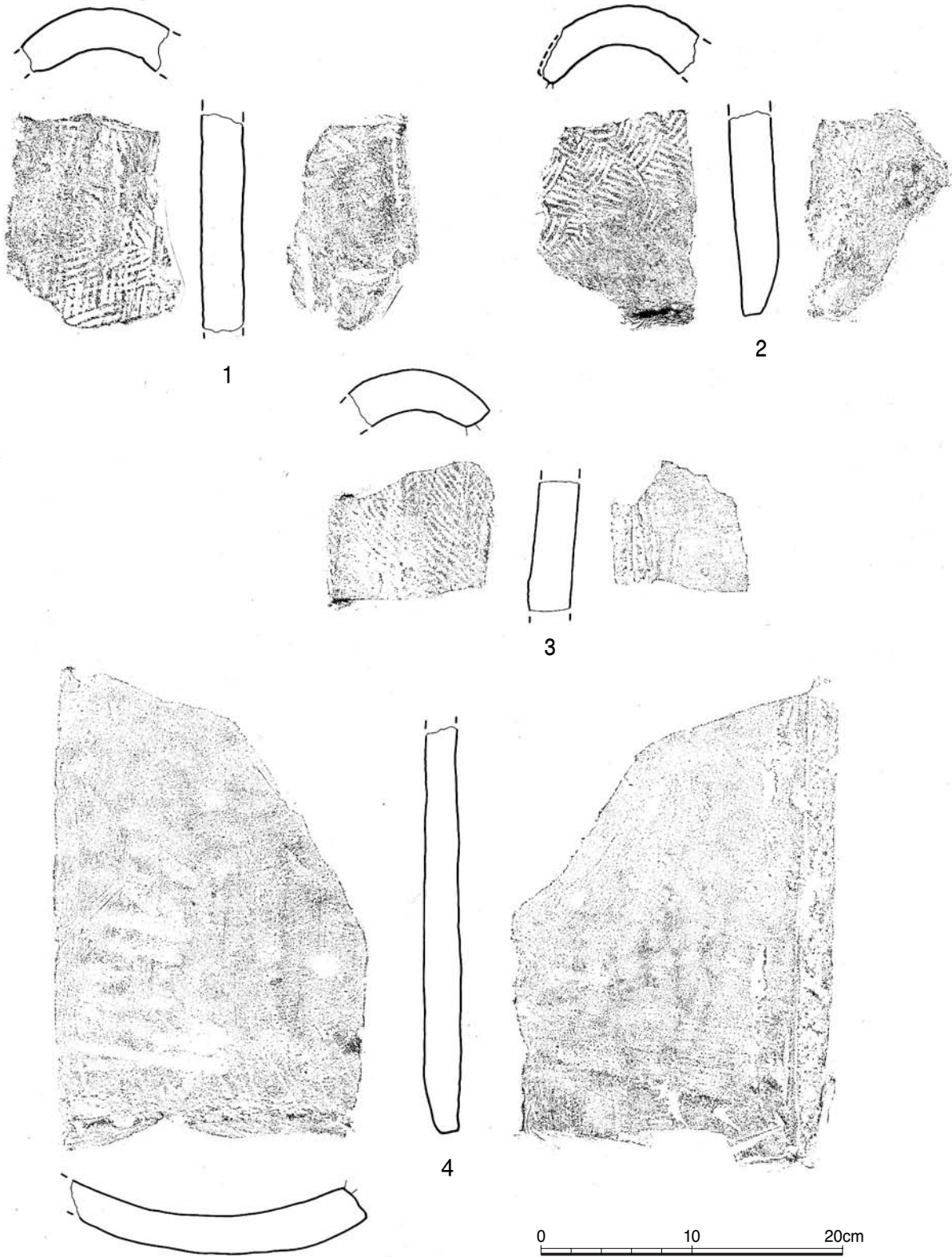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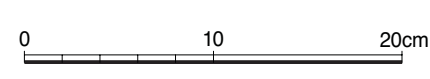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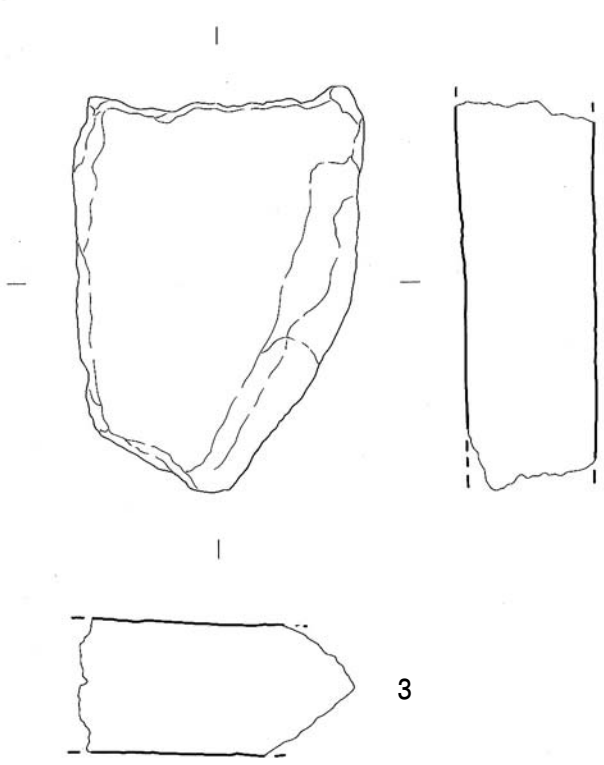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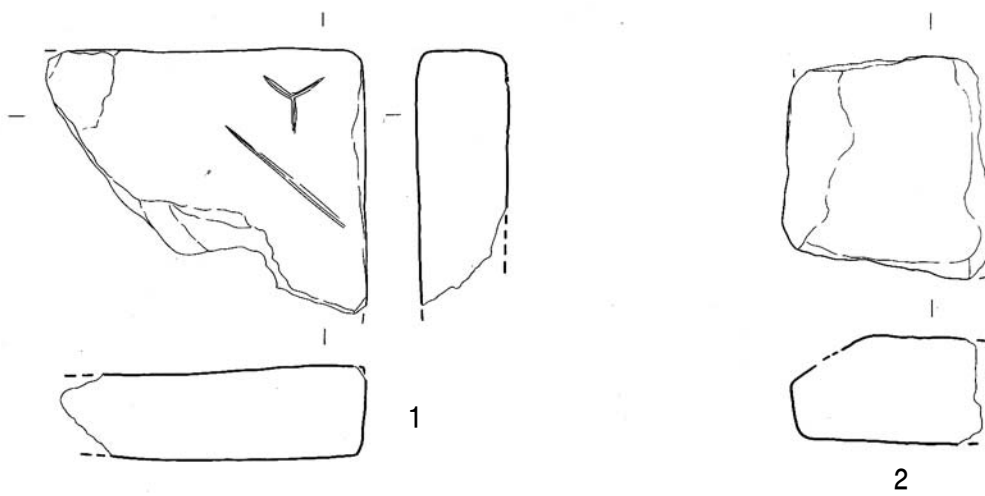
도면 13. 출토 유물



도면 14. 출토 유물



도면 15. 출토 유물



도면 16. 출토 유물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경질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내외면은 회흑색이고, 속심은 회색과 암적갈색이다. 내면에는 호상의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현높이 5.0cm, 복원구경 28.4cm

31. 塼(도면 16-1, 사진 17-⑥)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전이다. 사각형 전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모래와 굵은 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색조는 회청색이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다. 우측면 일부에 각기정면흔이 남아있다. 너비 16.1×13.5cm, 두께 4.8cm

32. 塼(도면 16-3, 사진 17-⑧)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전이다. 사각형 전으로 가장자리는 결실되어 일부만 남아있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태토는 모래와 굵은 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일부 회흑색을 띤다. 속심은 회색이다. 너비 14.5×20.0cm, 두께 7.0cm

33. 塼(도면 16-2, 사진 17-⑦)

호안석축 북측에서 출토된 전이다. 사각형 전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굵은 사립과 모래가 함유된 점토이다. 색조는 회청색이며 일부 회흑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불량하다. 너비 10.51×11.5cm, 두께 5.6cm

34~45. 기와

유물번호	출토위치	도면	사진	종류	태토	색조	소성도	등문양	잔존길이	잔존폭	두께			측면분할방법 및 와도흔			조정방법 및 특징
											상단	중단	하단	분할계선	와도흔	와도방법	
34	호안석축북측	13-1	16-①	수키와	석립함유, 조질	회청색	上경질	어골문, 선문	29.1	15.3	2.6	2.9	2.5		1/5	양면 안→밖	내면 점토 띠흔
35	교대지	13-2	16-②	수키와	석립함유, 조질	회청색	上경질	창해복합문	(26.3)	13.7	결실	2.4	2.2		1/5	양면 안→밖	내면점토 띠흔, 빗질정면
36	호안석축북측	14-1	16-③	수키와	석립함유, 조질	회청색	上경질	창해파문	(21.6)	11.5	2.4	2.5	결실		1/8	좌측 안→밖	일부에 점토 띠흔, 포흔없음
37	호안석축북측	14-2	16-⑧	수키와	석립함유, 조질	회청색	上경질	화문복합문	(14.5)	14.0	2.1	2.4	결실		1/3	좌측 안→밖	언강유실, 빗질정면
38	호안석축남측	14-3	16-④	수키와	석립함유, 조질	회청색	上경질	창해파문	(12.0)	10.3	결실	2.3	결실	○	1/5	좌측 안→밖	
39	호안석축남측	14-4	16-⑤	수키와	석립다량함유, 조질	회청색	上경질	창해파문	(8.7)	8.0	2.9	결실	결실			우측 안→밖	언강 짧음, 우측면 와도후 정면
40	호안석축남측	14-5	16-⑥	수키와	석립함유, 조질	회청색	上경질	창해복합문	(15.0)	8.6	결실	2.0	결실				빗질정면
41	호안석축북측	14-6	16-⑦	수키와	석립다량함유, 조질	회청색	上경질	능형문?	(17.5)	9.1	결실	2.1	1.5	○	1/5	우측 안→밖	지두흔
42	호안석축남측	15-1	17-①	수키와	석립함유, 조질	회색	下경질	창해파문	(14.3)	9.5	결실	2.8	결실				포흔이 희미함
43	호안석축북측	15-2	17-②	수키와	석립다량함유, 조질	회청색	上경질	창해파문	(13.5)	10.8	결실	결실	2.4			좌측 안→밖	포흔이 희미함
44	교대지	15-3	17-③	수키와	석립함유, 조질	회청색	上경질	창해파문	(8.6)	9.3	결실	2.7	결실		1/3	우측 안→밖	포흔이 희미함
45	호안석축북측	15-4	17-⑤	암키와	석립소량함유, 조질	회황색	上경질	무문	(27.0)	19.7	결실	2.4	2.4		1/4	우측 안→밖	점토함흔

IV. 考察

명당수(明堂水)는 풍수적 개념으로서 풍수의 기본 고전인 『청오경』이나 『장서』, 『지리신법』, 『명산론』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水法은 명산론과 함께 필수불가결한 이론으로서 물에 대한 개념이 일찍부터 정립되었다. 즉, 지리신법에 의하면 “산은 사람의 형체와 같고, 물은 사람의 혈맥과 같다. 사람은 형체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生長榮枯는 모두 혈맥에 의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명당수는 길방에서 와서 흉방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건축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궁에서는 북(玄武)에서 발원하여 외당을 회유하면 극히 길하다는 명당수가 있고 궁의 정문에서 궁전으로 들어가려면 이 명당수 위에 놓여진 돌다리를 통과하여야 한다. 궁궐의 경우 景福宮 永濟橋, 昌慶宮 玉泉橋 昌德宮 錦川橋, 華城行宮 新豐橋 등은 명당수가 흐르는 곳으로서 어구(御溝:대궐에서 흘러나오는 개천)에 석교를 세워 출입하였던 것이다.

창덕궁 금천교는 길이가 12.9m, 폭이 12.5m로 태종 11년(1411)에 조성되었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석교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다리의 구조를 보면 하천 바닥에 깔린 기반석 위로 홍예 2틀을 만들고 멩엿 돌 위에 돌난간을 세우고 다리 상판은 장대석으로 깔았다. 중앙부의 홍예 기반석 남측면에는 해태상을, 북쪽에는 거북상을 설치하였고, 그 위로 홍예틀이 만나는 기석에 귀면이 조각되어 잡귀를 쫓고 있다. 다리 위 양쪽에는 난간을 돌렸는데, 주석이 서고 그 사이에 동자석이 설치되고 한판 돌로 만든 풍혈이 끼어 있다. 이 다리는 평면이 아니라 중앙이 들린 구릉형이다. 이 다리 앞에 명당수와 관련되는 궁의 외당문인 진선문이 있다. 물이 나쁜 기운을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화성행궁은 궁궐 건축기법에 따라 건축되었기 때문에 창덕궁의 금천교와 같은 명당수가 있었고 신평교를 놓아 건너다니는 것이고, 외명당수인 수원천의 경우 오교(매향교)를 놓아 건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에 발굴조사된 명당수의 호안 석축은 축조 당시에 정교하게 치석된 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화성행궁 앞 명당수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이 물길이 南池로 연결되어 물을 채운 후 다시 은구를 지나 수원천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 물줄기는 현재 모두 복개된 상태였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원형의 일부나마 파악된 것은 화성의治水 방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신평교지는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긴 하지만 건립연대가 확실하고, 교량이 축조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18~19세기 교량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1차 복원완료된 화성행궁의 중심축과 약간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화성행궁의 건축 당시의 중심축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종로사거리에서 화성행궁으로 연결된 구도로 유적은 구 지표면과 성토방식이 확인되어 조선후기 도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新作路라 불린 화성의 도로는 1790년대에 새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당시의 도로 건설 방식과 규모, 폭원 등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도로의 성토방식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논토양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대규모 인력동원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성성역이 단순한 성곽의 축성이 아닌 신도시 건설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도로의 사용면을 갈황색사질토와 마사토, 화강암 부스러기 등으로 마

감한 것은 물빠짐을 고려한 조치로 상당히 높은 기술수준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번 조사에서 도로의 폭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볼 때 현재 사용 중이던 2차선 도로 폭으로 이해되었으며, 양쪽 변에는 배수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에 조사지역에는 신평교 앞에 세워졌던 홍살문과 도로 변에 관청 부속건물을 비롯한 건물지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1920년대 이후 근대적인 건축물이 건립되면서 대부분 지하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호안석축 조사과정에서 채집되었다. 백자편, 흑유자편, 도기편, 기와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벼루편도 1점 출토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18세기 후반~19세기에 제작된 생활용품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제시기 유물도 출토되었다. 신평교는 명당수가 복개된 후 그 존재가 잊혀졌고, 시간이 흘러 도로에 상·하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매설할 때 아무런 의심없이 굴착한 결과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사용되었던 석재들은 제자리를 이탈하여 신평교 주변에서 다량 확인되었다. 이 석재들 가운데는 사용 가능한 것도 일부 있어 복원에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조사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258-1번지 일대의 22,100㎡(약 6,600평)로 조사결과 조선시대 정조대에 이룩된 화성행궁 앞 명당수 호안석축과 신평교 교대지, 행궁 조성당시 도로의 구 지표와 성토층이 확인되었다. 기대되었던 조선후기 건물지나 홍살문의 흔적은 이미 유실된 상태였다. 출토된 유물은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자기편과 도기편, 와편, 벼루편, 신평교 석재 등이 출토되었다.

화성행궁 앞 명당수를 복원하고, 행궁 앞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궁궐의 금천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평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신평교는 명당수 호안석축의 잔존유구와 함께 중요한 역사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정밀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화성행궁 조성당시의 도로 성토층과 구 지표면이 확인되었다. 과거에 사용하던 길은 근대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다. 옛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옛길 자료도 빈곤한 실정에서 이번에 확인된 행궁 진입로는 조선후기 도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한 의미가 있다. 향후 행궁앞 광장 조성시에 과거의 '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진

여 백



사진 1. 화성 행궁 전경(①), 조사전 전경(②)



사진 2. 유적 전경(①), 유구 노출전경(②)



사진 3. 북측 호안석축 항공사진(①), 전경(②·③)



사진 4. 북측 호안석축 전경(①), 세부(②·③). Trench 동쪽(④), Trench 서쪽 토층(⑤)



사진 5. 남측 호안석축 항공사진(①), 전경(②~④)



사진 6. 남측 호안석축 세부(①~⑤)



사진 7. 신평교 교대지 조사전 전경(①), 노출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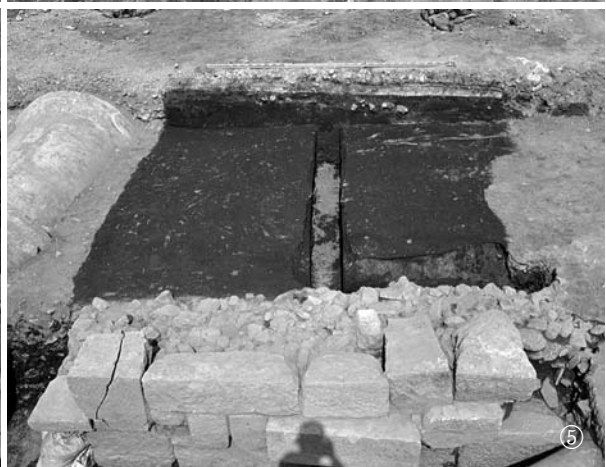


사진 8. 신평교 교대지 항공사진(①), 전경(②·③), 세부(④), 동쪽 토층(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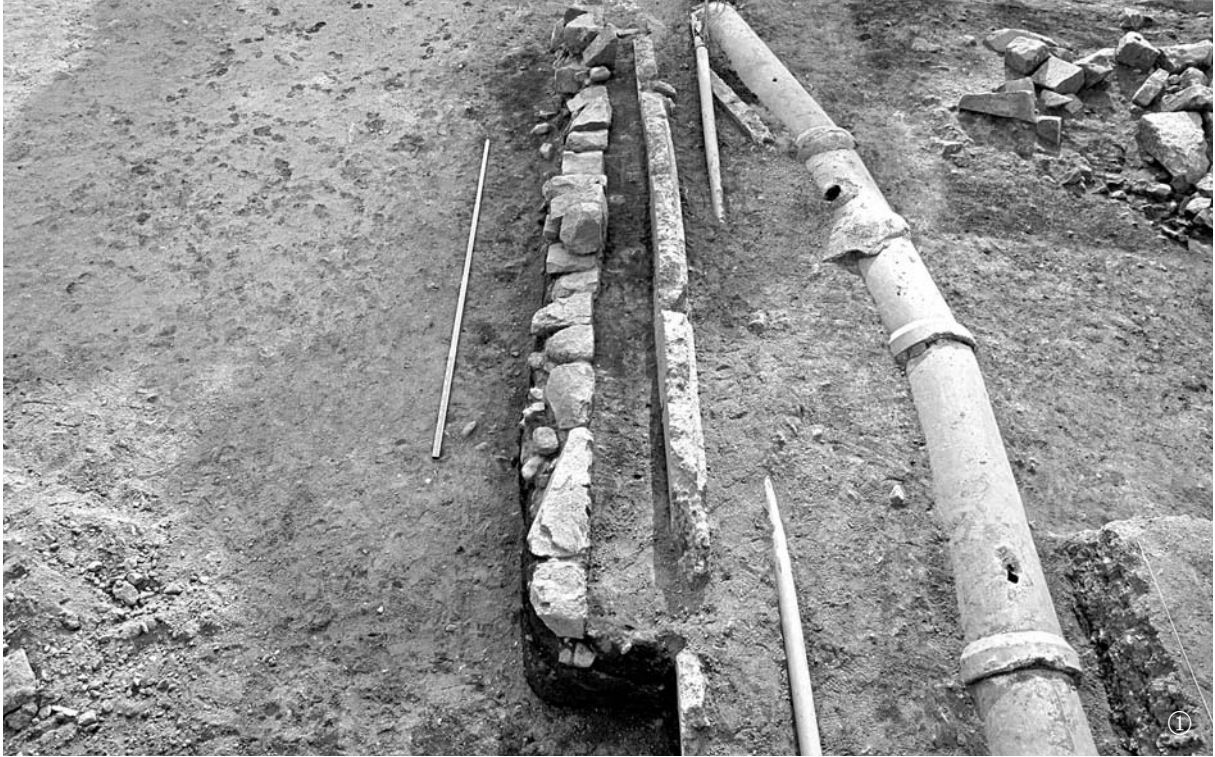


사진 9. 신평교 잔존 유구 전경(①·②), 토층(③)



사진10. 신평교 잔존 유구 세부(①~④), 신평교 교대지 전경(⑤,⑥)



사진11. Trench19 전경(①·②), 토층세부(③), 농촌진흥청 토양샘플 채취 광경(④)



사진12.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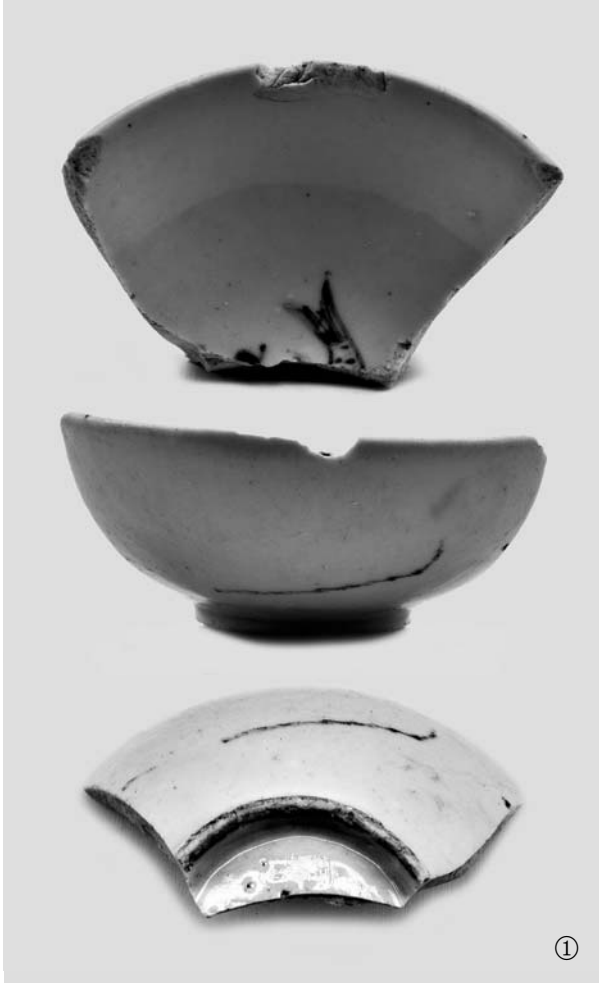


사진13. 출토 유물



사진14. 출토 유물



사진15.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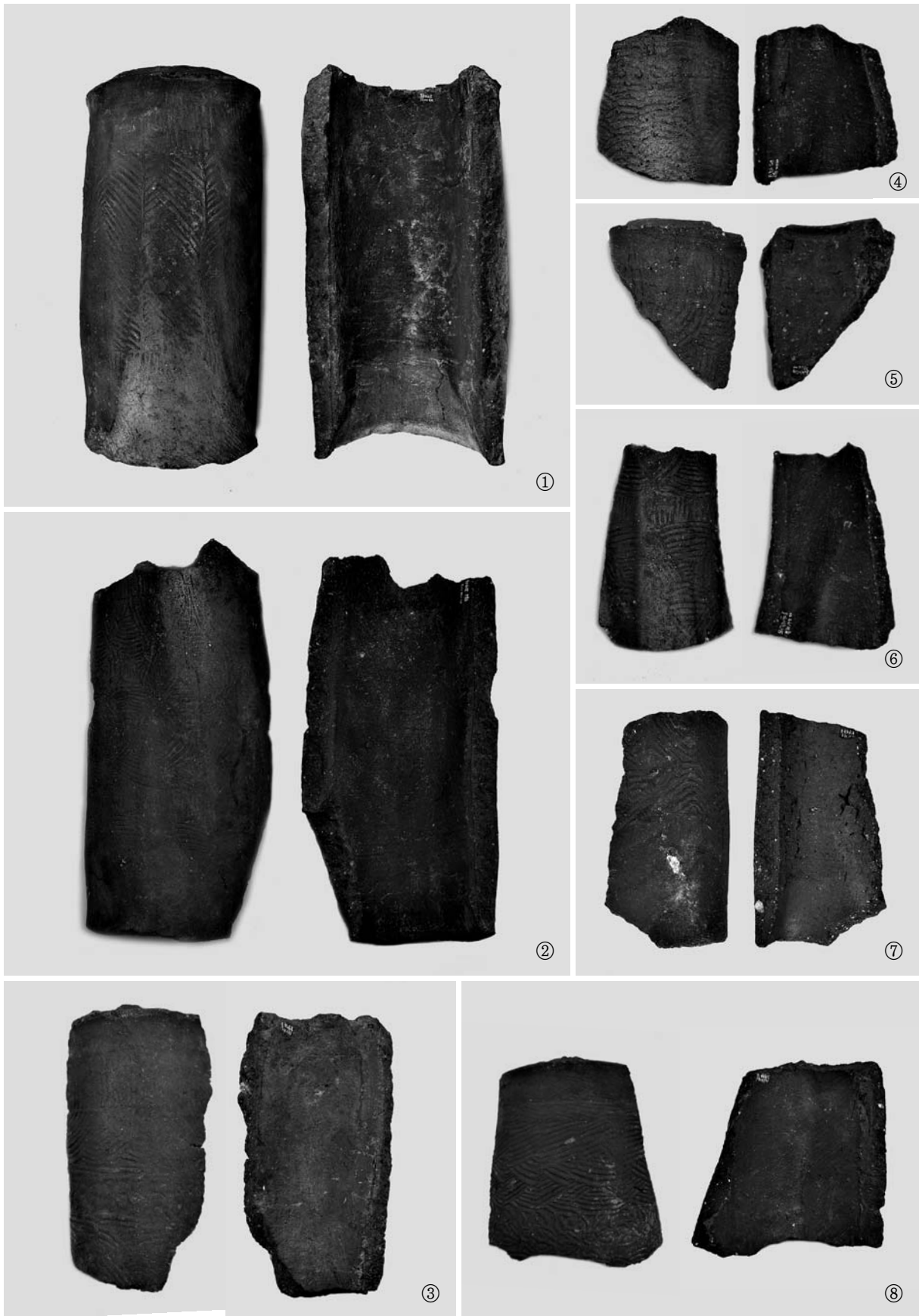


사진16.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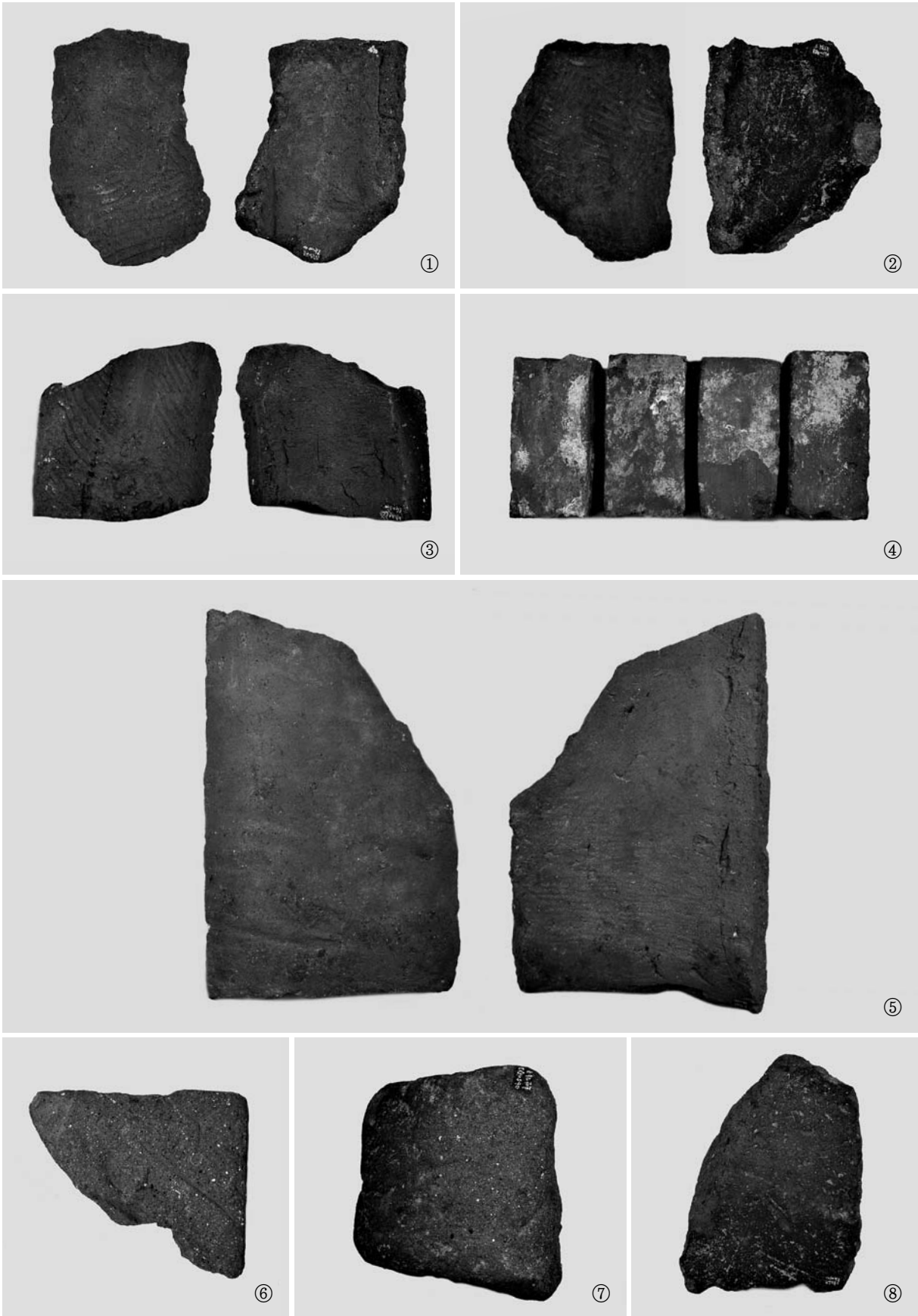


사진17. 출토 유물

여 백

수원 「화성」성역화 사업중 행궁앞길 축조의 토양단면 조사결과

1. 토양단면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06. 5. 30.(화)
-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258-1번지
- 조사목적 : 수원 「화성」행궁 앞길 축조의 토양단면 조사
- 조사자 : 김이열, 정석재, 손연규(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안내자 : 김충영, 김태완(수원시 화성사업소)

2. 화성 행궁앞 진입로 축조에 대한 토양단면 조사결과

1) 의뢰의 요지

세계문화유산 「화성」개발을 목적으로 행궁 앞 유적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행궁 진입로의 길을 만들 때 다른 곳의 토양(흙)을 쌓아서 축조하였는지의 과학적인 판단.

2) 토양단면 조사결과

(1) 형태 및 물리적인 토양 층위별 특성

- ① 0~25cm, 토색은 농암회갈색(10YR 3/2)이고 자갈이 약 25%정도 있으며, 토성은 양토, 도로포장의 기반토양으로 층계는 뚜렷이 구분됨.
- ② 25~31cm, 토색은 갈황색(10YR 6/6)이고 자갈이 없으며 토성은 사양토, 화강암잔적으로 도로 공사 시에 쌓은 토양으로 층위는 뚜렷이 구분됨.
- ③ 31~42cm, 토색은 암갈색(10YR 3/3)이고 토성은 사양토이며, 2번 층위의 흙과 뚜렷이 구분이 됨.
- ④ 42~80cm, 토색은 암갈색(10YR 3/3)이고 자갈이 5%정도 있는 사양토이며, 미사함량이 31%로 많고 반문이 5%정도(갈색)있으며 층위는 대단히 단단함.
- ⑤ 80~107cm, 토색은 암황갈색(10YR 3/4)이며 자갈이 5%정도 있는 양질사토이고 갈색(7.5YR 4/4)의 반문이 있음.
- ⑥ 107cm~ , 토색은 황갈색(10YR 5/4)이며 모래자갈로 뒤섞인 사토이며 하성층적으로 형성된 원래토양으로 추정됨.

(2) 토양단면사진



(3) 토양단면의 층위별 토성분석

순서	토층 (cm)	자갈함량 (%)	입경(%)			토성
			모래	미사	점토	
1	0~25	25	52	34	15	양토
2	25~31	-	73	21	6	사양토
3	31~42	-	62	27	10	사양토
4	42~80	5	57	31	12	사양토
5	80~106	5	78	15	7	양질사토
6	107+	40	95	4	1	사토

* 토성중 모래, 미사, 점토함량이 연속성이 없고 층위마다 다름.

3. 종합의견

○ 원래토양은 수원천에 의하여 충적된 토양이며, 직경 2~10cm정도의 자갈 및 모래로 물에 의해 충적된 토양으로 추정됨.(기층의 4m하부에서 암반층이 나왔다는 공사현장연구원의 증언)

○ 전체토층을 관찰해본결과 토색, 점토함량, 자갈함량, 배수상태, 토양구조 등으로 보아 토층이 뚜렷하고 층위마다 상이한 것으로 보아 토층 2번까지는 최근 도로공사 기초 작업에 의한 토층이고 토층 3~4번은 42~106cm내외로 다른 곳의 토양을 쌓아 행궁 앞길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됨.

○ 토층 4번 층위의 성토한 토양은 토색, 반문 등으로 보아 논토양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벼뿌리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음.

調查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수원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 부지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發行日	2008年 7月 9日
發行機關	名稱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住所	京畿道 水原市 八達區 仁溪洞 1116-1			
	T E L	(031)898 - 7990	F A X	(031)898-7991	
執筆·編輯者	정해득, 이충렬, 우승희				
調査緣由	화성 행궁 앞 광장 조성에 따른 시발굴조사				
調査擔當者	정해득, 이충렬				
遺蹟所在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흥동 258-1				
調査面積	22,100㎡				
調査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호안석축	조선시대	1기	자기, 기와		
신흥교교대지	조선시대	1기	자기, 기와		

■ 현장조사

- 조 사 : 정해득, 이충렬
- 유구실측 : 오유정
- 행 정 : 광대영, 채정민

■ 보고서

- 원 고 : 정해득, 이충렬, 우승희
- 편 집 : 우승희
- 유물실측 : 박혜정, 정정애, 문영옥
- 제 도 : 이현경
- 전자도면 : 조은정, 안진희
- 교 열 : 김영화

學術調查報告 第96冊

수원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 부지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2008年 7月 7日 印刷

2008年 7月 9日 發行

編輯 京畿文化財團 畿甸文化財研究院

發行 京畿文化財團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公社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031)898-7990 fax 031)898-7991

製作 칼라뱅크

印刷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47

☎ 031)258-1778 fax 031)258-6258

(비매품)

수원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 부지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